

2018
상반기
통권 183호

홍성문화



- 논 단 | 장곡면 지역의 지명 변천 탐구 I (조원찬)
| 결성면 성호리 김화규씨 가옥 (한종구)
| 합의 정치를 지향한 조선의 언론 I (김경수)
- 홍성의 전설 | 시집간 딸과 명당 산소터에 얽힌 전설 (김정현)
- 기행문 | 일본 속의 한민족사 탐방을 다녀와서 II (정명순)
- 나의삶나의예술 | 도예가 이능세씨 (조성미)
- 시 & 수필 | 꽃별 (전위영)
| 봄의 향기 (조승만)
| 교육은 나무를 가꾸는 것처럼! (주호창)
| 짹둥어 (배윤진)
| 봄이라서 좋아라 (윤은진)
- 독자기고 | 하수도 사건 (최규원)

[홍성문화 표지]

+

역재방죽과 가시연



빛깔이 곱기도 하네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연꽃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연잎위에 뽕족한 것이 가시처럼 솟아났다고 해서

‘가시연’이라고 부른답니다. 신기하죠?

이 가시연은 생태습지에만 피어나는데 전국에서 몇 군데 되지 않는다고 해요.

홍성문화원 바로 앞에 있는 ‘역재방죽’에서는 해마다 가시연이 피어납니다.

산책로를 따라 방죽을 한 바퀴 돌다보면 시름도 피로도 다 잊혀집니다.

우리 문화원에서는 무더운 한여름 밤을 정해

‘역재방죽 달빛데이트’라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죠.

역재방죽 가시연, 여름날에 홍성에 오신다면 빼놓지 말아야 할 볼거리입니다.

덥다구요? 냉커피 타드릴게요. 문화원으로 ‘드루와~~’ 

2018 상반기
Vol. 183



1989년 11월 23일 충청남도등록 충남바01100호
발행인 : 유환동
편집인 : 홍성문화편집위원회
발행일 : 2018년 6월
발행처 : 홍성문화원
인쇄처 : 충남인쇄사(041-634-3114)

32234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절로951번길 16
TEL : 041-632-3613
E-mail : hscult@naver.com
편집주간 : 조성미
편집위원 : 김정현 · 조원찬 · 조남민 · 정선영
편집디자인 : 김기연

Contents

- 04 논 단 | 장곡면 지역의 지명 변천 탐구 I (조원찬)
| 결성면 성호리 김화규씨 가옥 (한종구)
| 합의 정치를 지향한 조선의 언론 I (김경수)
- 38 홍 성 의 전 설 | 시집간 딸과 명당 산소터에 얹힌 전설 (김정현)
- 50 기 행 문 | 일본 속의 한민족사 탐방을 다녀와서 II (정명순)
- 60 나의 삶 나의 예술 | 도예가 이능세씨 (조성미)
- 68 시 & 수 필 | 꽃별 (전위영)
| 봄의 향기 (조승만)
| 교육은 나무를 가꾸는 것처럼! (주호창)
| 짱뚱어 (배윤진)
| 봄이라서 좋아라 (윤은진)
- 74 독 자 기 고 | 하수도 사건 (최규원)
- 77 사 진 & 미 술 | 청소년현대미술
- 82 홍성문화원 소식 | 상반기 문화탐방
| 전통성년식
| 2018 소소한 콘서트 '와러써커스'

논 단

장곡면 지역의 지명 변천 탐구 I

조 원 찬 (갈산고등학교 교사)

01

시작하면서

‘장곡면’은 1914년부터 실시된 충청남도령 제3호에 따라 면(面)의 명칭과 구역을 고칠 때 27면 626동리가 홍성군 소속으로 정리되고, 같은 해 4월 1일부터 새로운 군·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시작한 행정구역이다. 이때 장곡면은 조선시대 후기의 홍주군 오사면을 비롯하여 성지면, 유곡면, 일방면 등 4개 면을 중심으로 합쳐 만들었다.

장곡면 지역이 역사에 처음 보이는 것은 ‘사시량현’(沙尸良縣)이다. ‘사시량현’(沙尸良縣)은 『삼국사기』 지리지에 의하면, 백제시대 결기군에 속했던 지명이다. 이로 미루어 보면 장곡면 지역은 백제시대부터 지방행정의 중심지로서 자리매김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장곡면 지역은 백제가 무너지고 부흥운동이 크게 일어났을 때에도 중심지역할을 하였는데, ‘임존성’과 가까운 지리적 위치와 함께 장곡면 산성리 일대가 ‘주류성’으로도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통일신라시대에 장곡면 지역은 백제시대에 불리던 ‘사시량현’이景德왕(景德王, 742년~765년)때 신량현(新良縣)으로 지명이 바뀌고, 결성군(潔城郡, 백제시대의 결기군)에 속한 곳으로 정해졌다. 그 후 장곡면 지역은 고려 초에 여양현(驪陽縣)으로 지명이 바뀌면서 현령보다 한층 낮은 지방관으로서 감무(監務)가 파견되었다가 1018년(현종 9년)에 결성군(潔城郡)과 함께 홍주지주사 아래로 옮겨졌다. 1356년(공민왕 5년)에 왕사 보우의 고향이라 하여 홍주지주사가 목으로 승격하였다가 1368년(공민왕 17년)에 지주사로 내려갔고, 1371년(공민왕 20년)에 다시 목이 설치된 과정에서 여향현도 홍주지주사 혹은 홍주목에 속한 지역이 되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장곡면 지역은 1395년(태조 4년)에 여향현의 감무가 폐지되고 홍주목의 직접 관할 지역으로 옮겨지면서 지역의 위상이 크게 낮아졌다. 이에 1530년(중종 25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여향현은 ‘고적’조에 기록되고 있다. 그 후 조선 시대에 장곡면 지역과 관련된 기록은 1757년(영조 33년)~1765년에 각 읍에서 편찬한 읍지를 모아 만든 『여지도서』, 1789년(정조 13년)에 편찬된 『호구총수』, 1872년에 제작된 규장각본 ‘홍주지도’ 등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의 장곡면 지역에는 홍주목 속에 유곡면(酉谷面, 현재 장곡면 대현리~천태리~행정리~월계리 일대), 오사면(烏史面, 현재 광천읍 죽전리~장곡면 광성리 일대), 성지면(城枝面, 장곡면 신동리~신평리~상송리 일대), 열방면(淸方面, 장곡면 산성리~청양군 비봉면 일대) 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장곡면 지역은 갑오개혁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전국적인 지방제도의 변화에 따라 소속 군의 지명 변화가 있었다. 1895년(고종 32년) 5월 26일 칙령 제98호가 내려지면서 전국적으로 ‘도’제가 폐지되고 23부제로 바뀔 때 장곡면 지역은 ‘홍주부’에 소속되었다. 이듬해 1896년(건양 원년) 8월 4일 칙령 제36호가 내려지면서 지방제도가 다시 바뀌어 23부제가 폐지되고 13도제가 되었을 때에는 ‘충청남도’ 아래에 ‘홍주군’ 소속이 되었다.¹⁾ 그 후 1913년 12월 군의 명칭과 관할구역이 개정되고 1914년에 시행된 예에 따라 조선시대의 유곡면, 오사면, 성지면, 열방면 등지를 합쳐 새롭게 ‘장곡면’을 만들어 홍성군 장곡면이 되었다.

1954년 법정리 16개 리를 31개의 행정리로 나누었고, 1962년에는 행정리 31개를 30개로 축소하였다가, 1987년에 행정리 30개를 32개로 나누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글은 장곡면 지역과 관련된 지명의 변천 과정을 시대별로 정리하는 가운데 홍성의 역사 속에 나타난 장곡면 지역의 모습을 알아보고자 한다.

1) 이때 홍주군은 충청남도 산하 37군 가운데 1등군 공주에 이어 2등군으로 편제되었으며, 결성군은 4등군에 편제되었다. 이 과정에서 홍주군 소속이던 합남, 합북, 현내, 산남, 신북 등 5개 면이 당진군으로 옮겨지고, 용천면이 오천군에 옮겨졌으며, 고북, 운천 2개 면이 해미군으로 옮겨졌다. 군에는 군수를 두고 그 아래로 향장, 서기를 두었는데, 향장은 뒤에 폐지하고 군주사를 두었다.

홍성의 역사와 장곡

1. 구석기시대와 장곡

지금까지 알려진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 가운데 장곡면 지역에서 발견된 것으로서 가장 오래된 것은 신석기시대부터이다. 그러나 홍성을 옥암리 유적과 장곡면 지역의 자연환경을 비교할 때 장곡면 지역에서도 구석기시대의 삶의 흔적이 나타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구석기인들이 대부분 ‘강가’나 ‘냇물가’, 또는 ‘바닷가’에서 햇빛



▲ 홍성읍 옥암리 구석기시대 유적 위치

이 잘 비치는 곳으로 낮은 구릉이 있는 곳에서 동굴이나 바위그늘이 있으면 그곳에서 살고, 그런 것이 없으면 막집을 짓고 살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홍성을 옥암리에서 발굴된 구석기시대의 유적은 장곡면 지역의 사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된다.

옥암리 유적은 홍성을 조양문에서 남서쪽으로 1.4km 지점에 위치한다. 월산에서 동남쪽으로 흘러내린 능선이 홍성천을 만나 멈추고, 남산에서 시작된 능선이 동쪽으로 이어지다가 홍성천을 만나면서 형성된 공간이다. 지금은 ‘홍성 옥암 하늘채아파트’가 세워진 곳이다. 전체적으로 홍성천이 가까이 있고, 낮은 구릉에 햇빛이 잘 드는 곳이다. 옥암리 유적은 ‘하늘채아파트 신축 예정부지 내 문화유적의 발굴 조사’ 과정에서 알려진 곳이다. 비록 구석기시대의 전체적인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은 확인하

지 못했지만, 찧개와 함께 ‘석영’으로 만든 ‘격지(몸돌에서 떼어 낸 돌 조각)’ 및 ‘몸돌(격지를 떼어 내는 몸체가 되는 돌)’ 등이 확인됨으로써 홍성지역에서도 구석기시대부터 사람의 문화 활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²⁾

이러한 사례는 ‘장항선(온양온천~장항) 제3공구 노반 개량공사 구간 내 문화유적 시굴 조사 홍성구역’에서 발견된 구석기 유물의 예와 함께 홍성군 지역의 자연환경을 고려할 때 더욱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홍성읍 옥암리 출토 찧개 (충청문화재연구원 발굴보고서에서 옮김)

2) 성준택·지원구, 『홍성 옥암리 구석기 유적』, 충청문화재연구원, 2006.

2. 신석기시대와 장곡



▲ 빗살무늬토기 조각이 발견된 장곡면 대현리 동굴
(상명대학교박물관 보고서에서 옮김)

장곡면 대현리 2구 동안이 마을에서 발견된 빗살무늬토기 조각은 2003년에 발굴된 광천읍 상정리 유적과 함께 홍성군 지역에서 발견된 신석기시대의 유물과 유적 가운데 대표적인 예이다. 동안이 마을의 북쪽에 있는 산의 조그만 동굴에서 나온 빗살무늬토기는 비록 조그만 조각 하나였지만, 우리 고장에서 펼쳐졌던 신석기시대의 생활상을 전해주었고,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의 유적과 유물이 발견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와 함께 광천읍 상정리에서 발굴된 신석기시대 유적은 우리 고장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발굴 전문기관(충청문화재연구원)에서 조사된 자료로서 홍성 지역의 역사를 밝히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이곳에서는 신석기시대의 집터뿐만 아니라 청동기시대의 집터가 같은 자리에서 확인되었다. 이것은 신석기시대에 이어서 청동기시대에도 계속하여 이곳에서 사람들이 살았음을 알려 준다. 또한 이 자료는 비슷한 자연환경을 갖춘 홍성군 지역의 또 다른 지역에서도 신석기시대 유적의 존재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어 발굴보고서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상정리 유적은 행정구역상 은하면 장척리와 광천읍 상정리의 경계



▲ 광천읍 상정리 유적 위치

를 이루는 곳에 위치한다. 이곳은 은하면의 지기산 산줄기가 남서쪽으로 흘러내리면서 해발 약 80m 정도의 남쪽 경사면에 해당하는데, 동쪽으로는 가까운 곳에 광천천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고 상지천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다가 만나서 바다로 흘러가고, 유적과 냇물 주변으로는 넓은 농경지가 펼쳐져 있다. 집터는 지기산 산줄기가 남서쪽으로 흘러내리는 해발 약 80m 높이의 남쪽 경사면에 풍화된 황갈색의 암반토를 파내고 만들었다.



▲ 원형의 청동기시대 집터가 사각형의 신석기시대 집터를 파괴하고 만들어진 모습
(충청문화재연구원 발굴보고서에서 옮김)

집자리의 모양은 남아있는 유적 가운데 길이(짧은 쪽)가 110cm이고, 너비(긴 쪽)가 710cm이며, 남아 있는 깊이가 22cm 정도인 사각형의 집이다. 짧은 쪽의 길이가 110cm 밖에 안 되는 것은 청동기시대의 집터가 신석기시대의 집터를 파괴하면서 만들어져 나머지 부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집터의 구조는 서쪽 벽이 남아 있고, 북쪽과 남쪽의 일부 벽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집터 안의 시설로는 여러 개의 기둥구멍이 발견되었는데, 대부분 벽면 가까이에서 확인되었다. 아울러 집터에서 발견된 특이한 점은 바닥에서 불에 탄 흙층이 벽 쪽에 가깝게 남아있었던 것이다. 발굴보고서에 따르면, 이것은 이 집이 불에 타서 무너졌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집터 바닥면에서 발견된 유물로는 신석기시대에 사용되었던 빗살무늬토기 조각과 땅을 팔 때 썼던 돌보습 등이 있다.

한편 집터에서 동쪽으로 연결된 바로 옆에서는 2단으로 파낸 타원형의 구덩이가 발견되었다. 크기는 남아있는 상태로 보아 길이는 205cm, 너비는 93cm, 구덩이의 깊이는 92cm이다. 2단으로 파낸 구덩이의 2번째 단에서는 조그만 구멍(지름 4~6cm, 깊이 3~5cm) 3개가 벽면을 따라 규칙적으로 남아있었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이 구멍의 쓰임새는 기둥구멍으로 짐작하였다. 이곳에서 나온 유물로는 신석기시대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빗살무늬토기 조각들과 돌방망이 등이 있다. 발굴보고서³⁾에 따르면, 상정리 유적에서 발견된 집터와 저장 구덩이 및 각 유물들은 신석기시대의 후기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석기시대와 다르게 신석기시대에 오면 많은 변화가 나타난다. 먼저 홍성군 지역에서 살던 신석기시대의 사람들은 돌로 도구를 만드는 방법을 한층 발전시켰다. 구석기시대에는 ‘몸돌’을 떼어내서 자기가

3) 김백범 · 나건주, 『홍성 장척리 · 상정리 유적』, 충청문화재연구원, 2005.

원하는 모양의 도구를 만들거나, 떨어져 나온 날카로운 돌날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신석기시대에 오면, 상정리 유적에서 발견된 돌방망이와 돌보습처럼 뎨석기를 만드는 구석기시대의 방법에 더하여, 끝맺음을 할 때는 숫돌에 돌을 갈아서 매끄럽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도구를 만드는 방법이 그만큼 발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신석기시대 사람들은 부러지거나 무디어진 도구를 다시 갈아 손쉽게 쓸 수 있게 되었으며, 단단한 돌뿐만 아니라 무른 석질의 돌도 모두 이용하게 되었다.

둘째, 상정리에서 발견된 다양한 무늬의 빗살무늬토기들을 통해 토기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곳에서 발견된 토기는 대부분 모래 성분이 포함된 진흙으로 그릇을 빚고, 가마가 아닌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나무와 토기를 놓은 다음 한데에서 불에 굽는 방식으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만든 토기는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저장하는데 이용되었고, 이에 따라 생활이 더욱 나아졌다.

셋째, 상정리에서 발견된 돌보습은 신석기시대부터 농사짓기 생활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준다. 이때에는 주로 돌괭이, 돌삽, 돌보습, 돌낫 등을 활용하여 잡곡류를 생산하였다. 농사짓기는 대체로 집 근처의 조그만 텃밭을 이용하거나 강가의 퇴적지를 이용하여 적은 규모로 경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농경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냥과 고기잡이가 경제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식량을 얻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주로 활이나 창으로 사슴류와 멧돼지 등을 사냥하였고, 여러 가지 크기의 그물과 작살, 돌이나 뼈로 만든 낚시 등으로 고기잡이를 하였다. 또, 굴, 홍합 등 많은 조개류를 먹었는데, 때로는 깊은 곳에 사는 조개류를 잡아서 장식으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농경도구나 토기의 제작 이외에도 원시적인 수공업 생산이 이루어졌다.

넷째, 도구가 발달하고 농경이 시작되자 주거 생활도 개선되어 갔다. 상정리의 집터는 긴 사각형으로 땅을 파고 만든 집이다. 청동기시대의 집터로 인해 파손된 부분이 많지만, 다른 유적의 집터와 비교했을 때, 움집의 중앙에는 불씨를 보관하거나 취사와 난방을 위한 화덕이 있었을 것이고, 햇빛을 많이 받는 남쪽으로 출입문을 내었을 것이다. 아울러 상정리 유적에서 발견된 긴 타원형의 구덩이를 보면, 출입문 가까운

곳에 저장 구멍이를 만들어 식량이나 도구를 저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집터의 규모는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4~5명 정도의 한 가족이 살기에 알맞은 크기였다. 또한 지금까지 살펴본 상정리 유적과 유물은 일반적으로 신석기시대 사람들이 강가나 바닷가에서 움집을 짓고 살다가 점차 구릉 위로 옮겨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3. 청동기시대와 장곡



▲ 장곡면 도산리 고인돌

장곡면 지역의 자연지리적 환경은 남쪽의 오서산에서 시작한 산줄기가 북쪽으로 무한천을 따라 천태리로 이어지는 동쪽 지역을 제외하면, 서북쪽으로 갈수록 대부분 산이 낮아지면서 광천천과 삽교천을 따라 넓은 농경지가 펼쳐져 있다. 아울러 광천천과 삽교천을 따라 장곡면에서 광천읍과 홍동면으로 이어지는 냇물가 주변 지역에는 고인돌을 비롯한 청동기시대의 유물

이 많이 발견되었다. 먼저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으로서 고인돌이 장곡면 지역의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는데, 오성리, 화계리 1구와 2구의 모산마을, 가송리 가실마을과 조잔이마을 등의 고인돌은 광천천 상류지역에 있고, 도산리, 신동리 성중마을과 신곤마을 등의 고인돌은 삽교천 상류지역에 있으며, 대현리 2구, 행정리 능안마을, 천태리 속은리마을 등의 고인돌은 무한천(또는 반계천) 주변에 있다. 아울러 광천천 상류의 화계리 1구 소래실마을에서 발견된 돌화살촉과 돌칼 및 가송리 조잔이마을에서 발견된 무늬없는토기 조각들, 삽교천 상류의 신동리 신곤마을에서 발견된 돌화살촉 등도 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광천천과 삽교천의 상류 주변 및 무한천 주변에 형성된 골짜기와 그 안에 펼쳐진 넓은 농경지가 있는 자연환경이 돌도끼나 흙자귀, 나무로 만든 농기구로 땅을 개간하여 곡식을 심고, 가을에는 반달 돌칼로 이삭을 잘라 추수하는 청동기시대의 생활모습

과 관련이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무한천 상류에 있는 장곡면 산성리 일대는 기원전 3세기의 유물로 알려진 세형동검을 비롯한 청동기 유물이 많이 나왔던 예산군 대흥면 동서리와 같은 계곡으로 멀지 않은 거리에 있다.

한편 삼교천 상류인 장곡면 지정리 539-1번지에서 발굴된 청동기 시대의 집자리⁴⁾는 전문기관에 의해 발굴된 곳으로서 장곡면 지역의 청동기시대 생활모습뿐만 아니라 홍성군 지역에서 살았던 청동기시대 사람들의 생활모습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집자리가 발견된 곳은 해발 60m 내외의 낮은 구릉성 산지의 정상부에 해당된다. 서쪽에 삼교천이 흐르고 주변으로 농경지가 펼쳐져 있어 청동기시대의 생활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발굴보고서에 의하면, 이곳에서 발견된 집자리는 모두 3기이다. 3기 모두 타원형 구덩이가 있는 송국리형 주거지인데 먼저 만들어진 1호 주거지의 평면 형태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고, 1호 주거지보다 늦게 만든 2, 3호 주거지는 평면 형태가 원형이다.



▲ 장곡면 지정리 청동기시대 집자리 조사지역 (발굴보고서에서 옮김)

4) 김영국·이경열, 「홍성 지정리 유적, 홍성 벽계리 유적」, 『(財)百濟文化財研究院 文化遺蹟 調查報告』第17輯, 2011.

이곳에서 발견된 유물은 삼각형돌칼, 미완성의 석기, 무늬없는토기 조각, 돌화살촉 조각 등이 있다. 발굴보고서에 따르면 지정리 집자리는 전체적으로 송국리형 주거지로서 사용 시기는 청동기시대 중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청동기시대 주거지로서 홍성군 지역에서 발굴된 자료가 홍성을 남장리, 홍성을 송월리, 홍성을 학계리, 광천읍 상정리, 은하면 장척리 등지에서 확인되었다. 이들 유적 역시 대부분 청동기시대 전기에서 중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장곡면 지역의 청동기시대 유적과 유물은 홍성군 지역의 다른 예와 함께 당시의 생활모습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다. 청동기시대에 장곡면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은 하천 주변에 햇빛이 잘 드는 구릉을 터전으로 삼아 다양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원형과 긴 사각형의 움집을 짓고 살았다. 자연에만 의지했던 생활에서 점차 벗어나 집 주변에 돌도끼나 흙자귀, 나무로 만든 농기구 등을 이용하여 농경지를 개간하고 곡식을 심었다. 아울러 냇물에서는 물고기와 조개를 잡아먹었고, 뒷산에서는 산짐승을 잡아 식량을 늘렸다. 가을에는 반달 돌칼과 삼각형 돌칼로 추수한 곡물을 갈돌과 갈판을 사용해 음식을 만들고 무늬없는토기를 이용해 조리하여 먹었다. 그리고 삶이 끝나면 고인돌, 또는 돌널무덤에 묻혔다.

이러한 생활 방식은 은하면 장척리 집자리 유적에서 알 수 있었던 기원전 10세기 전후부터 홍동면 출토 석기류를 통해 볼 수 있었던 기원전 4세기를 거치면서 홍성군 지역에 농경사회를 바탕으로 한 마을들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잉여생산물이 많아지면서 한편으로는 소유와 비소유, 지배와 피지배의 구조를 만들었고, 이는 곧 소국(小國)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다. 나아가 이 모습은 고대 교통로를 포함한 지방행정 중심지와 관련하여 금리천과 바다를 끼고 있던 결성면 일대, 와룡천이 흐르는 갈산면 일대, 무한천이 흐르는 장곡면 일대를 중심으로 좀 더 강력한 소국이 출현할 수 있는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이는 곧 마한을 거쳐 백제시대에 결기군(지금의 결성면 일대), 사시량현(지금의 장곡면 일대), 우견현(지금의 갈산면 일대) 등이 홍성군 지역에 설치된 이유이기도 하다.

4. 원삼국시대와 장곡



▲ 홍성 석택리 유적 중 환호취락 (한얼문화유산연구원 학술자문회의 자료집에서 옮김)

백제에 편입되기 전 원삼국시대⁵⁾에 장곡면 지역을 비롯한 홍성군 지역은 마한의 영역에 속했다. 삼한이 각각 언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지만, 이른 지역의 경우 기원전 3세기 무렵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비파형동검과 거친무늬거울이 사라지면서 세형동검과 잔무늬거울을 사용하였다. 아울러 북쪽으로부터 전개된 철기문화의 유입과 유이민의 이주는 토착민들의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철제 농기구의 보급은 농업 생산력을 증대시켰고, 나아가 큰 마을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나아가 잉여생산물이 많아지면서 한편으로는 소유와 비소유, 지배와 피지배의 구조를 만들었고, 이는 곧 소국(小國)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금리천과 바다를 끼고 있던 결성면 일대, 와룡천이 흐르는 갈산면 일대, 무한천이 흐르는 장곡면 일대를 중심으로 좀 더 강력한 소국이 출현할 수 있는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5) 원삼국시대는 초기철기시대 이후 ~ 삼국시대 이전의 시대로서 서기전 100년경부터 서기 300년경까지의 약 400년간의 기간을 이른다. 이 시기에 나타나는 문화적 특징으로는 청동기의 실용성 소멸, 철기생산의 보급 및 확대, 김해토기의 출현, 농경(벼농사)의 발전, 고인돌의 소멸, 돌덧널무덤의 발달 등을 들 수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주지하다시피 마한에는 54국의 소국이 있었다. 이때 장곡면 지역을 중심으로 한 홍성군 지역에는 소위건국, 감해비리국, 점비리국, 사로국 등이 있었을 것으로 비정되고 있어 최소 하나 이상 최대 4개의 소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왔다.⁶⁾

이와 관련하여 백제시대에 군·현이 설치된 곳으로서 금리천 주변의 결성면 일대, 무한천 주변의 장곡면 일대, 와룡천 주변의 갈산면 일대, 삽교천 주변에서 환호유적이 나온 홍북면 석택리 일대 등은 각각 소국과 읍락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생각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이 가운데 장곡면 일대는 마한의 사로국(騶盧國), 또는 점비리국(占卑離國)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로국은 좀 더 많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곡산성’에서 ‘사로’라는 명칭과 연결될 수 있는 ‘사시량(沙尸良)’, ‘사라범초(沙羅凡草)’, ‘사량관(沙良官)’이란 글자가 새겨진 기와가 출토되었기 때문이다. 마한의 소국과 읍락이 뒤에 백제로 편입되면서 군·현이 설치된 곳이 많았던 것을 고려하면 무리한 생각은 아닌 것 같다.⁷⁾

그렇다면 그 중심지는 ‘장곡산성’이 있는 무한천 상류의 장곡면 산성리~대현리~옥계리 주변 지역이 가장 근접한 지역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강유역에서 부여계 온조 집단이 남하하고 새로운 형태의 결속기반이 형성되면서 마한 연맹체의 세력은 크게 위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홍성군을 비롯한 장곡면 지역에도 점진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홍성지역의 소국과 읍락이 마한 연맹체에서 점차 백제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질서체제 안으로 편입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6) 소위건국(素謂乾國, 충남 홍성군, 정인보설, 『조선사연구』), 감해비리국(監奚卑離國, 충남 홍성군, 이병도설, 『삼한 문제의 신고찰』, 『한국고대사연구』), 점비리국(占卑離國, 홍성 장곡면, 천관우설, 『마한 제국의 위치 시론』, 『동양학』9), 사로국(騶盧國, 홍성 장곡면, 이병도설, 앞의 글)

7) 이도학은 “백제가 복속 지역에 설치한 행정 단위는 기존 마한 제국의 개별적 역량을 헤아려 주거나와……”라고 하였다.(이도학, 『백제 고대국가 연구』, 일지사, 1995, 357쪽) 또한 노중국은 “백제 당시의 방·군·성의 수는 5방·37군·200성(현)이었다. 지방 조직의 편제에서 토지와 인구의 다과라고 하는 객관적인 기준 위에서 지방조직을 편제하였다.”라고 하였다.(노중국, 『백제의 정치』, 『백제의 역사』, 충청남도·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1995, 137쪽) 백제시대 사비 도입기의 백제 영토와 마한의 영토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마한의 소국이 54국인 것에 비하여 백제의 군이 37군이라면 역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백제시대 군으로 편제된 지역은 대체로 마한의 소국으로 짐작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5. 백제시대와 장곡

백제시대에 장곡면 지역을 비롯한 홍성군 지역에는 1군 2현이 있었다. 『삼국사기』 지리지에 의하면 결기군(홍성군 결성면 일대)과 그 영현이었던 사시량현(홍성군 장곡면 일대), 마시산군(예산군 덕산면 일대)의 영현이었던 우견현(홍성군 갈산면 일대)이 그것이다. 그러나 백제의 지방제도가 대체로 사비(현재의 부여)에 도읍했던 시기에 정비된 것을 고려하면, 사시량현이 설치된 장곡면 지역이 본격적으로 백제의 지배질서 안에 편제되었던 것도 웅진 도읍 시기에서 사비 도읍 시기로 이어지는 시기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는 장곡면 지역이 지리적으로 왕성에 가깝고, 웅진과 사비 도읍 시기에 걸쳐 중국과의 외교를 위한 교통로 상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장곡면 지역이 마한의 한 소국에서 백제 편으로 옮긴 것은 이보다 앞선 한성 도읍 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성면의 신금성 백제 생활유적에서 출토된 한성 백제시대의 토기류 때문이다. 이곳에서 출토된 토기의 유형으로는 세발달린 토기, 깊은바리형 토기, 긴계란형 토기, 뚜껑, 시루, 곧선입 짧은목 구형 항아리, 높은 굽이 달린 접시, 그릇 받침 등이 있다. 이 토기들은 그릇의 형태나 제작 방법 등에서 홍성지역에서 있었던 원삼국시대의 토착적인 문화기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한성 백제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신기술의 소산이라고 한다. 또한 몽촌토성에서 출토된 것들과 비교할 때 대체로 4세기 중엽 경을 전후로 한 시기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3세기 후반 중국 서진(西晉)때 유행한 것으로 알려진 ‘돈 무늬 도기’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는 몽촌토성에서 출토된 돈 무늬 도기와 같은 유형인만큼 결성지역의 정치체가 목지국과의 마한 연맹체 관계에서 떠나 한성 백제와의 대외 교섭을 추진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결성지역의 정치체가 중국 서진과의 대외교역을 통해 얻은 교역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당시 한성 백제가 이미 연맹왕국의 단계에서 고대 국가로의 발전 도상에 있었고, 홍성지역 또한 백제의 지배 질서 안에 편제된 시기로 추정되고 있어 서진과

의 직접적인 교역은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3세기 후반 고이왕 때를 기점으로 펼쳐지는 일련의 영토팽창 과정에서 홍성지역도 목지국이나 아산지역의 소국들처럼 백제의 영역으로 편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결성면 지역의 정치체는 백제의 지배 질서 속에서 편제되는 한편으로 한성 백제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자신들의 지배적 특권을 보장받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장곡면 지역도 이러한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그러면 현재 장곡면 지역에 있었던 사시량현의 중심지는 어디에 있었을까?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곳이 ‘장곡산성’과 ‘학성산성’이 있는 무한천 상류의 산성리~옥계리~대현리 주변 지역이다. 장곡산성에서 백제시대의 지명과 관련된 ‘사시량(沙尸良)’, ‘사라범초(沙羅凡草)’, ‘사량관(沙良官)’이란 글자가 새겨진 기와가 출토되어 백제의 사시량현과 밀접히 관련된 곳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물론 이 기와들이 8세기 후반에서 9세기 초반에 해당되는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되었고 장곡산성이 통일신라시대 ‘신량현’의 지방통치를 위한 치성(治城)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와에 새겨진 지명이 백제시대의 옛 지명을 사용하고 있고 장곡산성이 백제시대부터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장곡산성이 있는 주변 지역을 백제시대 사시량현의 중심지로 보아도 크게 무리는 아닐 듯싶다.

한편 백제시대에 장곡면 지역과 관련된 지명으로서 오산(烏山, 현재의 오서산)이 있어 주목된다. 오산은 사비시대로부터 영산(靈山)으로 알려져 산악숭배 신앙의 대상이 되었던 것 같다. 산악숭배 신앙은 사비시대 국가 체제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지신(地神)과 관련된 여러 신앙 체계가 오제(五帝) 또는 산악신을 숭배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한원』 백제전에는 “괄지지(括地志)에 이르기를 오산(烏山)은 나라의 북계(北界)에 있는 큰 산인데, 풀·나무·새·짐승들이 중국과 같다. 또 나라 동쪽에는 계람산(鷄藍山)이 있고 …”라고 하여 오산(烏山)과 계람산(鷄藍山) 등이 기록되어 있다. 『한원』 백제전에서 오산과 계람산의 위치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없다. 그러나 『삼국사기』 잡지 제사조에 의하면 신라의 제사를 기록하

면서 '중사(中祀)'가 이루어지는 오악(五岳) 가운데 계룡산을 적고 있고, 기타 항목에서 오서악(烏西岳)을 기록하고 있다(이병도 역주 『삼국사기』는 계룡산을 백제시대의 계람산으로 해석하는 한편, 오서악은 결기군에 있으며 지금의 홍성군 결성면에 있다고 하였다). 이로써 미루어 볼 때 산의 명칭에서 같은 한자를 쓰고, 백제의 북쪽으로 큰 산 이라면 지금의 오서산이 이에 해당한다. 더구나 오서산은 계룡산에 이어 충남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이다. 즉 『한원』 백제전에 보이는 계람산은 신라 이후 계룡산으로, 오산은 오서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의 장곡면 지역에서 광천읍 지역으로 넓게 있는 오서산(烏棲山)은 백제시대 오산(烏山)으로 불리면서 사비 도성의 삼산(三山)과 함께 신인(神人)이 사는 영산(靈山)으로 숭배되어 성대한 제사 의식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제사 의식의 격식은 신라의 예에 비추어 볼 때 사비 도성의 삼산은 대사(大祀)에 해당하며, 오산은 계람산과 더불어 중사(中祀)의 예에 따라 제사의 격식이 갖추어졌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오산은 주변 군·현의 신앙을 결집시키는 가운데 이후 백제가 멸망했을 때 백제부흥운동의 구심적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나아가 장곡면 지역은 백제부흥운동과도 관련이 많다. 나·당 연합군이 백제의 수도 사비를 함락시키고, 의자왕과 왕족 및 신하 등을 포로로 잡았지만 백제는 무너지지 않았다. 임존성과 주류성을 거점으로 한 백제부흥운동이 무려 4년간에 걸쳐 끊임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660년 7월 18일~663년 11월) 이때 장곡면을 비롯한 홍성군 지역은 백제부흥운동의 중심부에 있었다. 이는 백제부흥운동의 거점이었던 임존성과 주류성의 위치 추정설 가운데 홍성지역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⁸⁾ 특히 사시량현의 중심부로 추정되는 장곡산성이 있는 산성리 주변은 지세가 험하고 계곡이 좁아, 군사상 요충지로 적합한 지형을 갖추고 있으며, 학성산성, 태봉산성, 소구니산성이 띠를 이루듯 이어져 있어 주목되는 곳이다. 더불어 장곡산성은 옛 백제부흥군의 거점으로 알려져 있는 예산 대흥 임존성(사적 제90호)과는

8) 그 동안의 연구 성과에 따르면 임존성과 주류성은 여러 곳으로 비정되면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 가운데 임존성은 예산군 대흥면의 봉수산성과 홍성군 장곡의 학성산성에 비정되고 있고, 주류성은 홍성설(장곡면 산성리 일대), 서천설, 연기설, 부안설 등이 있다.

12.6km, 당진 혜성과는 37km, 청양 정산의 두릉운성과는 23km, 공주와는 34.5km, 부여와는 27km의 거리를 두고 있다.

6. 통일신라시대와 장곡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면서 새롭게 확대된 백제와 고구려 방면의 영토에 대해 685년(신문왕 5년) 9주 5소경 체제로 군·현을 정비하고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였다.⁹⁾ 그런데 홍성군 지역에 결성군(현재 결성면 일대)과 그 영현이었던 신량현(현재 장곡면 일대), 이산군의 영현이었던 목우현(현재 갈산면 일대) 등이 설치된 것은 757년(경덕왕 16년)의 일이다. 그러면 경덕왕 이전에 홍성군 지역의 군·현 편제 및 지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백제시대의 군·현명을 그대로 유지한 채 신라 정부의 명령·통제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의 검토가 필요하다.

- ① “봄 정월에 교서를 내려, 관직의 이름을 모두 옛 것으로 회복시켰다.”¹⁰⁾ (『삼국사기』 권 제9, 신라본기 제9, 혜공왕 12년)
- ② “12도(道)에 사신을 파견해 군(郡)·읍(邑)의 경계를 정하였다.” (『삼국사기』 권 제10, 신라본기 제10, 애장왕 9년)
- ③ “3월에 웅천주 도독 헌창(憲昌)이 아버지 주원(周元)이 왕이 되지 못함을 이유로 반란을 일으켜, 국호를 장안(長安)이라 하고 연호를 세워 경운(慶雲) 원년이라 하였다. 무진, 완산, 청주, 사벌의 4개 주 도독과 국원경, 서원경, 금관경의 사신, 여러 군·현의 수령을 협박해 자기 소속으로 삼았다. 청주도독 향영(向榮)은 몸을 빼 추화군(推火郡, 현재 경남 밀양)으로 달아났고, 한산주, 우두주, 삼랑주, 패강진, 복원경 등은 헌창의 역모 사실을 미리 알고 병사를 일으켜 스스로 수비하였다. (『삼국사기』 권 제10, 신라본기 제10, 헌덕왕 14년)

9) 홍성군 지역은 663년 11월 백제부흥운동이 실패로 끝난 뒤 당이 백제의 옛 땅에 웅진을 비롯하여 마한·동명·사연·덕안에 각각 도독부를 설치했다가, 곧 이어 웅진도독부를 설치하고, 그 아래에 동명·지심·노산·고사·사반·대방·분차 등 7주·52현을 두었을 때 대략 지심주에 속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심주 아래의 지심현은 현재 예산군 대흥면에 속한다.

10) 이와 관련하여 혜공왕 10년(774년)에 상대등이 된 김양상이 중심이 되어, 중대 전제왕권을 부정하고 귀족연합정권을 지향해 나가는 표징이라는 견해(이기백)와 녹읍이 부활되었던 경덕왕 시기의 지명 및 관호와 관련된 일련의 개혁정치 자체가 애초부터 의미가 약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이영호, 『신라 혜공왕 12년 관호복고의 의미』 『대구사학』 39, 1990.)

앞의 기록에서 ①, ②의 자료에 따르면, 백제시대의 ‘사시량현’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도 백제 때의 지명으로 계속 사용되다가 757년(경덕왕 16년)에 ‘신량현’으로 바뀌었지만, 19년만인 776년(혜공왕 12년)에 다시 ‘사시량현’으로 돌아갔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808년(애장왕 9년) 즈음에 ‘신량현’이 된 장곡면 지역은 822년(헌덕왕 14년) 3월 초에 김현창이 웅주(지금의 공주)에서 난을 일으켜 국호를 ‘장안(長安)’이라 하였다가 3월 말에 진압된 사이에는 짧지만 장안국에 속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은 장곡산성에서 발견된 기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장곡산성에서 통일신라시대의 기와이지만 백제시대의 지명과 관련된 ‘사시량(沙尸良)’, ‘사라범초(沙羅凡草)’, ‘사량관(沙良官)’이란 글자가 새겨진 기와가 출토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장곡면 지역이 여전히 지금의 결성면·갈산면 지역과 함께 백제시대에 이어 통일신라시대에도 홍성군 지역의 행정과 문화의 중심지역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통일신라시대에 장곡면 지역과 관련된 지명으로서 오서악(현재 장곡면과 광천읍의 경계를 이루는 오서산)이 있어 주목된다. 신라는 삼국을 통일한 후 명산대천을 정비하면서 대사·중사·소사로 구분하였는데, 그 중에서 오서악이 중사로 편제되어있기 때문이다. 오서악은 이미 백제시대부터 ‘오산’이라 하여 유명한 곳이었다. 또한 오서악을 비롯한 주변 지역은 백제부흥운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선도한 지역이었다. 임존성으로 지정되고 있는 봉수산성(현재 홍성군 금마면과 예산군 대흥면 일대)이 오서산의 줄기가 북으로 이어진 곳에 위치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이는 중앙집권적인 지방통치체제의 정비와 함께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산천에 대한 제사를 정비할 때 오서악을 중요하게 평가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즉 백제 유민들이 기존에 가져왔던 오서악에 대한 산악숭배 신앙을 인정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한편, 정신적·종교적으로도 신라인을 만들기 위한 조치에서 시행된 것은 아닐까 생각되기 때문이다. 

〈다음호에 2편이 이어집니다.〉

논 단

결성면 성호리 김화규씨 가옥

한 종 구 (청운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1. 마을의 인문환경 및 조사가옥의 조영배경

1.1 결성면 역사적 배경

결성면은 본래 결성군 지역으로서, 일제강점기인 1914년 6월 1일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10개 면이 결성, 은하, 서부, 광천, 구항 등 5개 면으로 축소·개편되었고, 본래 결성군의 읍내가 되므로 현내(懸內)면이라 하여 22개 리를 관할하였다.

그러다가 1914년에 용천면(龍川面=고등산(古等山), 고등(高等), 서북고등산(西北古等山), 용천산면(龍川山面) 등 칭함) 16개 리와 가산면의 목현리의 일부, 화산면의 장양리, 가정리의 일부, 홍주군 고남하도면의 산직리를 병합하여 용천면이라 하여 홍성군에 편입되어 교항, 금곡, 무량, 성곡, 성남, 성호, 와리, 용호, 읍내, 중리, 형산의 11개 리로 개편·관할하였다.

그 후, 1917년 면명 변경에 따라 결성군의 이름을 따서 결성면이라 했다. 현재에 관할하는 리는 9개 리로 교항, 금곡, 무량, 성곡, 성남, 성호, 용호, 읍내, 형산리 이다.

1.2 성호리 역사적 배경

성호리는 본래 결성군 현내면의 지역으로서, 앞에 호수가 별모양을 하고 있으므로 성호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후동 일부와 현내면의 교촌 난정리, 가곡리, 후청리, 피촌

을 병합하여 홍성군 용천(결성)면에 편입되었다.

이곳 배머리 옆 나정에는 일명 관해정이 있는데 유학의 대가인 한원진(남당)과 김시철(치암), 그리고 윤봉구(병계)가 시문과 이 기학을 강론한 곳으로 유명하다.

1.3 조사가옥의 현황

충청남도 결성면 성호리 91번지에 위치한 본 가옥은 상량문을 통해 일제강점기인 1935년 2월 8일에 지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고택은 아직도 활용되고 있으나, 약13년 전부터 고택 옆에 신식 구조물을 지어 생활하고 고택은 주방과 광 그리고 일부 방만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면에서 아직도 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잘 정리되어 있다. 3남 2녀가 있으며 조사 당시 자녀들은 서울에서 생활하고 노부부만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고 있었다.

2. 가옥의 배치와 내·외부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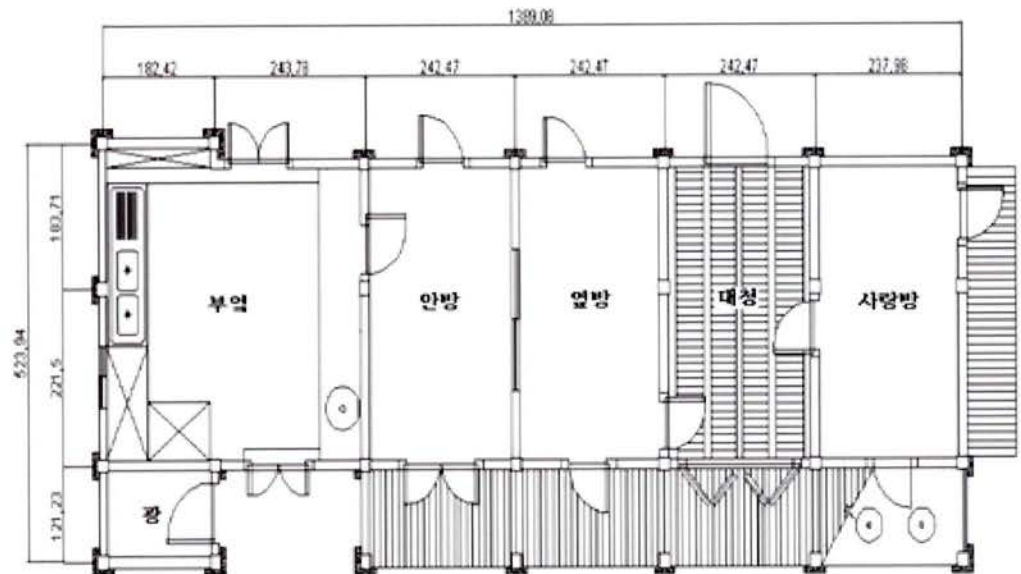
2.1 가옥의 내부 구성

본 가옥은 정면 6칸, 측면 3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부지방에서 많이 쓰이는 ‘ㄱ’자 형식으로 되어있다. 중부지방에서는 주로 ‘ㄷ’자형이 많이 쓰이는데 이 가옥은 남부지방에서 많이 쓰이는 ‘ㄱ’자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

실구성은 방 3개와 대청, 광, 부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문에 가까운 사랑방이 있는데 전면 누마루 밑에 함실아궁이를 설치하고, 솥을 걸어 부엌에서 멀리 떨어진 방을 독립적으로 난방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2.1.1 안채 및 사랑채

통상 안채와 사랑채 공간이 분리된 경우가 많은데 비해 본 가옥은 안채와 사랑채 공간이 별도의 채로 분리되지 않고 한 채로 구성되었다.



▲ 김화규씨 가옥의 안채 및 사랑채 평면도

실제로는 남성의 공간과 여성의 공간을 엄격히 구분하였던 조선시대에 비해 그러한 구분이 다소 열린 일제강점기에 세워진 건물로서 기능과 편리성을 중시하여 한 채의 안채에 건넌방에 해당되는 공간을 사랑방으로 활용하였다고 보인다.

실구성은 좌측부터 부엌, 안방, 옆방, 대청, 사랑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들과 대청 앞에는 툇마루가 있고 사랑방 앞에는 누마루가 있으며 사랑방의 동측에는 쪽마루를 두었다.



▲ 안방의 모습

(1) 안방

정면 1칸, 측면 2칸으로 구성되어 정면의 문은 쌍여닫이와 미닫이문이 함께 있는 이중 창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엌 쪽에는 외여닫이문이 있고 우측에는 미서기문이 있다.

현재에는 뒤편 문과 부엌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방에는 TV와 오디오가 있지만 사용을 하지 않고 신축 건물에서 TV 시청 등을 하고 있다.



▲ 옆방의 모습

(2) 옆방

정면 1칸, 측면 2칸으로 구성되어 정면의 문은 외여닫이로 구성되어 있고, 안방 쪽에는 쌍미서기문과 대청 쪽으로는 외여닫이문이 있다.

자녀들이 사용하는 방이었지만 현재에는 아무것도 배치되어 있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다.



▲ 대청의 모습

(3) 대청

정면 1칸, 측면 2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면은 사분합문이 후면은 다른 문보다 큰 외여닫이문이 있다.

조사 당시에는 과실주와 병풍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한옥의 경우 다른 집에서도 그렇듯이 여름에 시원해서 대청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고 한다.

대청의 장점인 시원한 바람의 통풍을 위해 대청의 앞쪽과 뒤쪽의 문은 다른 방들보다 크게 만든 것을 볼 수 있다.

(4) 사랑방

사랑방은 집안의 가장인 남자 어른이 잠을 자거나 식사를 하는 방으로 남자들의 공간이다.

외부로부터 온 손님들에게 숙식을 대접하는 장소로 쓰이거나 이웃이나 친지들이 모여서 친목을 도모하고, 집안 어른이 어린

자녀들에게 학문과 교양을 교육하는 장소이기도 했다.

정면에는 난방을 위한 아궁이인 함실아궁이를 두어 솥 2개를 걸었고, 그 위로 누마루가 있다. 누마루의 외주부에는 난간대가 구성되어 있으며, 난간대에 아름다운 운공이 조각되어 있다.



▲ 사랑방의 내부 모습



▲ 사랑방의 외부 모습

현재에도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난방이 잘되어, 양옥 건물을 지었음에도 추운 겨울에는 이 사랑방에서 생활 및 취침공간으로 사용한다고 한다.

(5) 부엌

정면 2칸, 측면 2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취사와 난방을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 안방과 문으로 연결되어 있다.

2개의 솥이 있었지만 현재는 큰 한 개의 솥만이 남아 있으며, 아직까지 이 솥을 이용하고 있다. 안방으로 연결되어진 문이 있었는데 현재는 막아놓은 상태라고 한다. 현재는 이곳에서 조리는 하지 않는다고 한다.

앞과 뒤에는 문이 있고, 뒷문으로는 여느 집처럼 장독대로 바로 갈 수 있어 편리함을 가지고 있었다. 현재에는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뒷면에는 전면에 유리를 단 3단 재래식 찻장이 구성되어 있다.



▲ 부엌의 안쪽 모습



▲ 부엌의 아궁이 모습

(6) 광

식량, 부식, 각종 생활용품 및 재화 등을 보관하고 저장하기 위해 부엌 앞에 광이 설치되어 있다. 저장, 관리, 출납하여 효용면에서 가치를 높인다는 기능면에서는 곳간이나 창고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다만 광은 규모면에서 곳간이나 창고보다 작고 품목면에서 종합적이라는 차이가 있어 가벼운 창고라 하겠다. 광은 한국의 재래 가옥에서는 필수적인 생활공간이요, 부대시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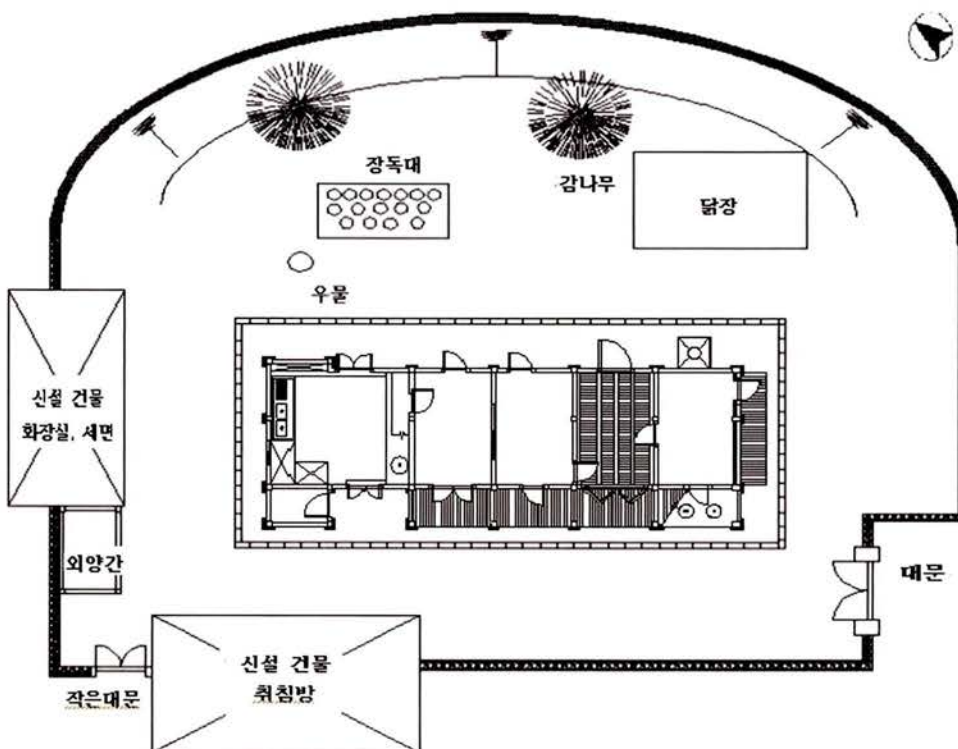
▲ 광의 모습

또 “광에서 인심난다(먹고 살 만큼 넉넉해야만 남을 동정하게 된다는 뜻)”는 속담에서 보다시피, 광은 부(富)의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이 가옥의 광은 정면 1칸, 측면 1칸 크기로, 부엌 출입구 좌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라면, 부탄가스, 빵 등을 보관하고 있다.

2.2 가옥의 배치 및 외부 구성

2.2.1 가옥의 외부 배치



▲ 김화규씨 가옥의 외부 배치도



▲ 외양간의 모습

2.2.2 가옥의 외부 구성

(1) 외양간

전형적인 농촌에서는 집 밖에 외양간을 만들어 사육하는 일도 있었으나, 대부분 집에 붙은 창고나 헛간 같은 곳에 외양간을 설치하였다.

이 경우 파리가 많이 생기고 불결한 점도 있었으나, 말과 소는 농촌에서 중요한 가산이며 농경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가까운 곳에 두고 관리하며 건강상태를 돌보아 주었다.

현재 외양간은 가축을 키우지 않아서 아래 부분은 잡동사니를 쌓아두고, 상부에는 양파 등을 걸어놓은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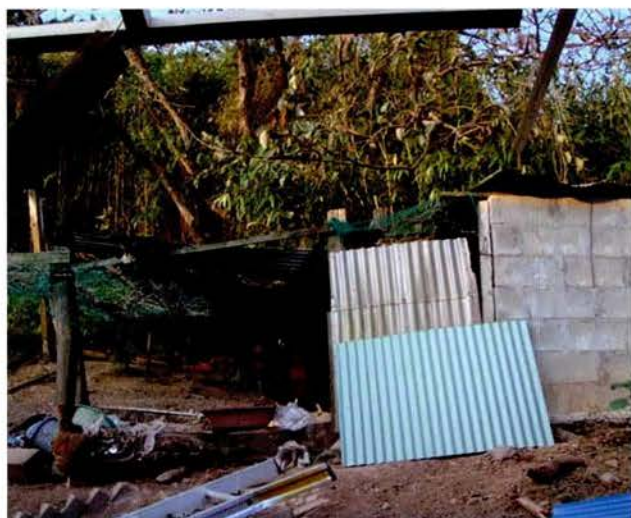
(2) 담

담은 어느 한 곳을 다른 곳으로부터 막아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의 집은 집안과 집밖이 담을 통해 구분된다. 담은 집 전체를 하나의 공간으로 묶는 역할을 한다.

이 가옥의 현재 담은 콘크리트로 보수한 담과 식물을 이용한 담이 섞여있다. 집을 지을 당시에는 담이 있었지만, 시간이 오래 경과하면서 자주 허물어져서 아예 없앴 후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다시 담을 지었다고 한다.



▲ 담의 모습 1



▲ 담의 모습 2



▲ 철 대문의 모습

(3) 대문

본 가옥의 대문은 2개의 문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재에는 철 대문으로 대문을 교체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 가옥은 대문에 가까운 곳에 사랑방을 배치하고, 부엌을 대문과 가장 멀리 두었다. 외양간 옆에는 또 다른 목조로 된 작은 대문이 있고, 이 문은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다.



▲ 외양간 옆 작은 대문의 모습

(4) 후원 및 우물

후원은 여성의 공간으로 건물 뒤 안쪽에 있으며, 장독대와 우물이 있다.

후원에는 두 그루의 감나무가 심어져 있다. 장독대는 큰 독 4개, 중독 6개, 작은 독 6개 정도를 가지런히 놓고 사용하고 있다.

현재에는 우물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장독대의 동측에는 닭장을 설치하여 닭을 기르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 후원의 모습

3. 가옥의 일반구조 및 환경설비

3.1 가옥의 일반구조

3.1.1 지붕

팔작지붕은 우진각지붕 위에 맞배지붕을 올려놓은 것과 같은 형태의 지붕이다. 측면에도 지붕이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우진각지붕처럼 삼각형 끝점까지 기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박공부분이 만들어지는 지붕 형태이다.

전·후면에서 보면 갓을 쓴 것과 같은 형태이고, 측면에서는 사다리꼴 위에 맞배지붕의 측면 박공을 올려놓은 것과 같은 형태이다.

이 가옥은 팔작지붕으로 되어 있으며, 합각에 길상무늬가 새겨져 있다.



▲ 지붕의 모습



▲ 우측 합각의 장식무늬 모습

3.1.2 기둥

주춧돌 위에 세우는 나무를 기둥이라 부르는데, 이 기둥은 공간 구성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이다.

고어로는 긴, 기디, 기둥, 지둥 등으로 불렸으며, 사전적인 의미로는 집의 간살을 표준하여 배열한 주초 위에 세워, 보·도리 등을 받치는 둥글거나 네모진 굵은 나무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옥의 기둥은 네모난 기둥이지만 끝을 날카롭지 않게 모따기 처리를 하여 섬세하게 가공하였다.



▲ 기둥의 모습



▲ 기둥 상부가구 모습



▲ 종도리의 모습

3.1.3 종도리

용마루 밑에 서까래를 걸쳐놓는 도리이며, 마루도리, 마룻대라고도 한다. 이 가옥의 종도리에 상량문이 새겨져 있어 이 고택이 지어진 시기를 알 수 있다. 종도리 밑에 소로를 놓고 그 밑에 장여를 놓았다.

3.1.4 초석

초석이란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주춧돌

인데 초석은 2가지 역할이 있다. 하나는 기둥을 통해서 전달되는 집의 하중을 땅으로 전달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땅의 습한 기운을 목재 기둥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이 가옥의 초석은 네모나게 깎은 가공석을 사용하였고, 높이는 20cm, 넓이는 35cm로 거의 동일한 크기를 사용하였다.



▲ 초석의 모습

3.2 가옥의 환경설비

3.2.1 취사 및 난방설비

환경설비에는 보통 취사, 난방, 굴뚝, 상하수도, 측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취사와 난방은 부뚜막에서 솥을 걸고, 불을 지필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취사와 난방의 이중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현재는 부엌의 아궁이들은 소멸되어 없는 상태이고, 굴뚝은 사랑채의 외부에 노출되어 있다. 굴뚝의 하부는 콘크리트로 된 사각형이며, 상부에는 피브이씨 파이프(pvc pipe)로 설치되어 있다.



▲ 굴뚝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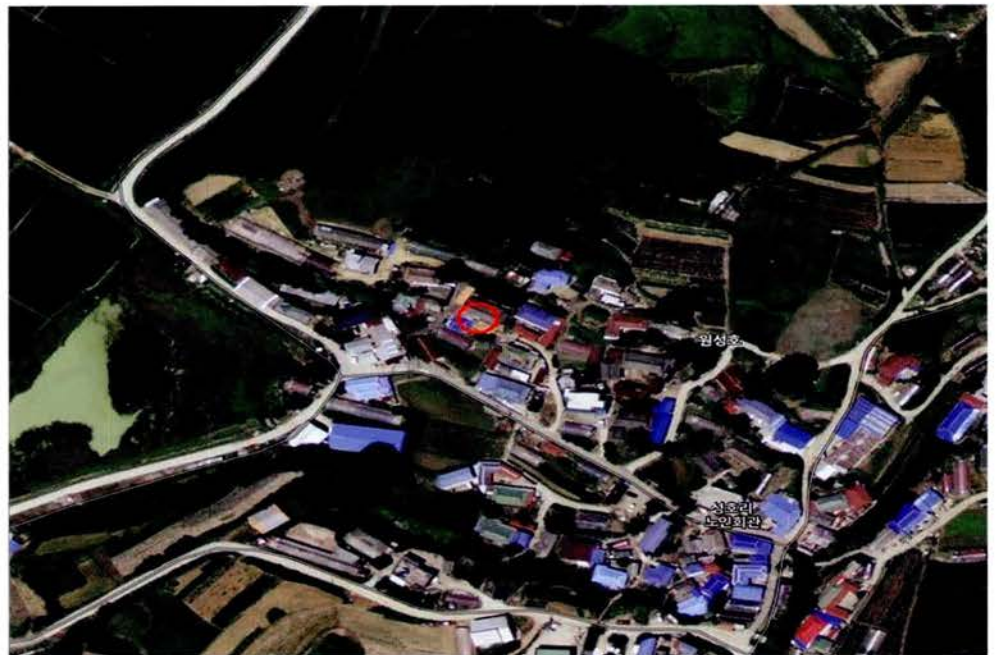
4. 가옥의 풍수지리적 해석

풍수론에는 현대의 과학으로 바라보면 분명 비합리적인 요소가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풍수론 전체를 버리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풍수론은 우리 조상들이 천년 이상 의지하고 살았던 일종의 자연관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도 상당수의 한국인들이 풍수론을 신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여러 곳에서 풍수를 가르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풍수론에 아직도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풍수에서 중요한 원리의 하나는 ‘장풍득수(藏風得水)’를 들 수 있다. 이것을 그대로 해석하면 ‘바람을 갈무리(저장)하고 물을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풍수 중 주거지를 고르는 양택 풍수는 오늘날에 활용가능성이 있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라 고른 땅은 아주 아름답고 실용적이다. 그래서 그런 곳에 사는 인간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 김화규씨 가옥의 위성사진 모습 (적색 원 안에 김화규씨 가옥)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앞에는 물을 두고 있는 땅은 분명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이다. 이것을 두고 배산임수(背山臨水), 즉 산을 등지고 물에 접해있다 라고 한다.

본 가옥은 배산임수에 따라 나지막한 현무봉을 뒤로하고, 앞에 있는 안산을 바라보면서 남향으로 배치되었다. 가옥의 좌우 용호를 보면, 좌청룡이 우백호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기세가 좋다. 집 앞의 안산은 다소 높은 것이 흠이다.

방위에 따른 기운으로 길흉을 따져보는 양택삼요론으로 본 가옥을 분석해보자.

주택을 비롯한 건물 방위의 길흉 분석은 8방위로 해석한다. 8방위는 <주역>의 팔괘와 그 의미가 같은데, 360도의 원주를 8등분해서 동서남북의 4방위와 그사이의 4방위로 이루어져 있다.



▲ 현무봉의 모습



▲ 안산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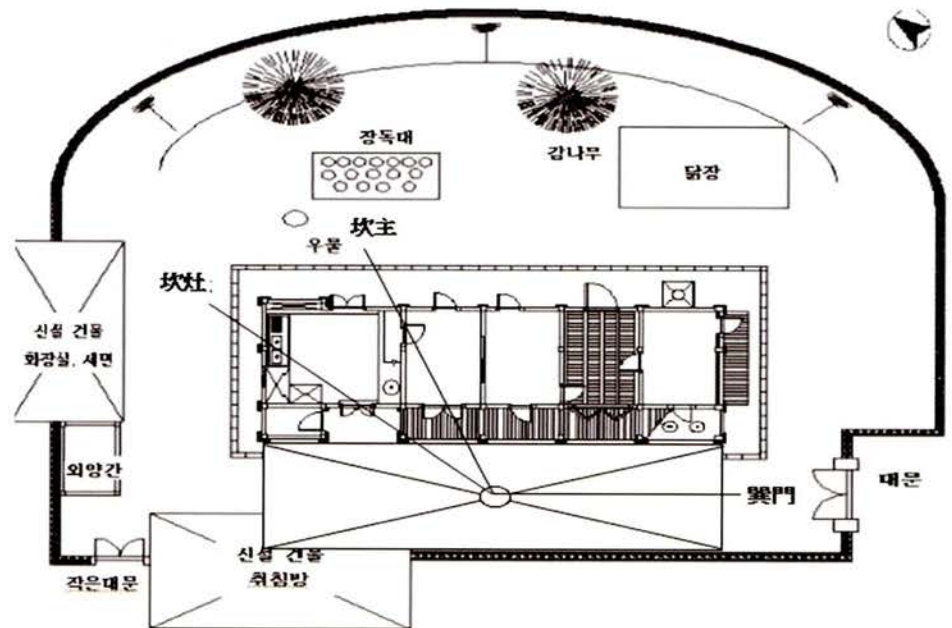
▲ 좌청룡의 모습



▲ 우백호의 모습

8방위는 정북(正北)·정남(正南)·정동(正東)·정서(正西)·북동(北東)·남동(南東)·남서(南西)·북서(北西)로서 각각 45도씩 구분하고 있다. 45도의 8방위를 다시 3등분하면 24방위가 된다.

즉, 패철을 통해 주택의 좌향을 결정한다. 김화규씨 가옥의 향은 간좌곤향이며, 동사택이다.



▲ 김화규씨 가옥의 좌향 및 양택삼요 분석

이를 팔괘로 배치를 해보면, 손문감주감조(巽門坎主坎灶)에 해당되며 이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五子登科是風水
오자등과시풍수

名生氣宅 貪狼得位 五子登科 男女俊秀 子孝孫賢 兒孫滿堂 富貴極品 夫婦齊眉
명생기택 탐랑득위 오자등과 남녀준수 자효손현 아손만당 부귀극품 부부제미

科甲蓮綿 世代榮華 第一吉宅 人丁大旺 婦女賢良 家無白丁
과갑연면 세대영화 제일길택 인정대왕 부녀현량 가무백정

다섯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는 바람과 물이다. 이름 하여 생기택으로 탐랑이 제자리를 잡아, 다섯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고, 남

녀가 준수하며, 자식은 효도하고 손자는 어질며, 자손들이 집안에 가득하고, 부귀가 최상급이며, 부부가 서로 존경하다. 과거의 갑과에 연달아 합격하며, 대를 이어 영화를 누리는 제일 좋은 집으로, 자손들이 크게 왕성하고, 부녀자는 어질고 착하며, 집안에 벼슬을 못한 사람이 없다.

坎灶爲生氣 大吉大利 福祿壽齊全 婦女聰明
감조위생기 대길대리 복록수제전 부녀총명

감의 부엌은 생기로 대길하고 대리하며, 복록수(福祿壽)가 완전히 갖추어 졌으며, 부녀자들이 총명하다.

분류	위치	동서사택	음양(陰陽)	오행(五行)
안방	兌(계) → 坎(감)	동사택	양(陽)	수(水)
대문	巽(손)	동사택	양(陽)	수(水)
부엌	子(자) → 坎(감)	동사택	음(陰)	목(木)
평가		조화	조화	조화

▲ 김화규씨 가옥의 양택삼요 분석표

※ 본 가옥의 조사와 원고정리에 도움을 준 박현귀 군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논 단

합의 정치를 지향한 조선의 언론 I

김 경 수 (청운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1. 들어가며

어둡고 우울한 뉴스의 홍수 속에서도 ‘그래도 사람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한줄기 햇살 같은 소식을 접할 때, 그래서 점점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 사람들은 말한다. “저녁 9시 뉴스에 나오는 것이 세상에서 벌어진 일의 전부는 아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 뉴스는 세상을 내다보는 창이자,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좌표를 알게 하는 상황판이다. 뉴스가 전해주는 정보 속에서 내가 지금 서 있는 좌표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의 역할이 이렇게 지대한 만큼 공중파 방송의 뉴스는 현대 언론의 골든타임을 점유하고 있는 방송 언론의 꽃이다. 당연히 시청률 경쟁도 치열하다. 뉴스 자체의 시청률뿐만 아니라 뉴스 직전에 하는 드라마의 시청률에 보도국이 신경을 곤두세운다. 뉴스 전의 드라마가 그 이후까지 채널을 고정시킨다는 통계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제 따로 시간을 투자하고 문자의 뜻과 행간에 숨겨진 이면을 계산해야 하는 문자 정보보다, 친절하고 감각적이며 감정이 실려 있는 영상 정보를 더 선호한다. 말과 영상은 정보에 감정이 흐르게 하고 그 정보가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해석해 즉



▲ 독립신문

각적으로 전달해준다. 편리와 감각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경향에 훨씬 맞는 매체인 셈이다.

‘즉각성과 감각성’, 언론에 있어 글보다 말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이점이자 강점이다. 이것은 현대뿐 아니라 합의 정치를 지향했던 조선의 언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조보가 정보의 기록성에 충실한 언론이었다면, 대간 제도는 ‘말’과 논쟁의 비중이 중대한 언론 제도였다. 엄격한 계급 사회에서 직제상 비교적 하위직에 속했던 대간들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탄핵할 수 있는 자리였던 만큼, 정연한 글솜씨보다 탁월한 언변으로 적확하고 치밀한 논고를 펼 수 있어야 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대간을 통한 조선의 언론 활동은 참으로 매섭고 적극적이었다. 군주의 통치 행위는 물론, 일반 관료들의 일거수일투족 모두가 언론의 대상이 되었다. 언론기관이 일종의 사정기관의 기능까지 함께 담당했던 것이다.

지금처럼 일반에 널리 퍼고 알리는 광범위한 언론 제도는 아니었으므로, 9시 뉴스처럼 일반 백성들에게 시류를 알려주는 창이나 개개인의 좌표를 점검하게 하는 척도가 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왕을 비롯한 관료들에게는 그들의 삶을 점검하게 하고 마땅한 평가를 내리는 삼엄한 스피커의 역할을 감당했다. 무소불위한 권력을 휘두를 것 같은 왕도 이 대간들의 눈과 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무릇 하늘 아래 조선인이라면 대간에 관한 한 그 누구도 치외법권이 적용될 수 없었던 것이다.

2. 왕의 전횡을 막아라. 조선의 직업 언론인 ‘대간’

조선 사회의 언론이 상당히 발달하였음은 관료 제도의 운영에서 그 실상을 알 수 있다. 급변하는 건국 초기의 상황에서도 결코 대간의 폐지나 축소 등이 논의된 적이 없으며, 대간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은 유교 이념에 위배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왕은 물론 관료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은 언론의 규제는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 한성순보, 최초의 신문

대간의 직제와 활동은 도덕 정치의 구현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신념 하에서 이루어졌다. 즉, 대간은 사대부 공론의 대변자요, 건국 이래의 법의 수호자라고 인식되었던 것이다. 대간은 자신들이 어느 군주의 충실한 신하라는 점을 의심치 않았던 것처럼, 동시에 공론의 대변자요, 법의 수호자라는 점도 확신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이 섬겨야 하는 군주와 신봉하는 신념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그 신념에 따르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였다. 진정한 충성은 군주에게 버림받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군주를 올바른 도리로 이끌도록 간언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여기에 대간이 보통의 감찰관들과 다른 점이 있는 것이며, 이러한 대간 제도의 운영이 조선왕조 유교적 정치체제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추구했던 가장 이상적인 정치는 합의를 통한 조화와 균형의 정치라는 것이다.

대간은 조선왕조의 정치·사회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었다. 대간의 탄핵 활동을 통하여 항상 당시의 지배자들에게 도덕적인 완성을 촉구하고, 또 그들의 비도덕성을 추궁하였기 때문에 당시의 정치나 당시의 지배자들이 최소한의 도덕성을 유지할 수 있다.

상하 관계가 지나치게 강조되는 사회나 조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의견이 표출됨으로써 정치에 활력을 부여하고 나아가 당시의 정치가 조정 내의 소수 관료들 마음대로가 아니라, 최소한 당시의 지배 계층인 사대부의 여론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조선왕조는 이러한 기반 위에서 최소한의 정국 안정을 기할 수 있었다.

조선 사회 언론기관의 실상과 구체적인 활동을 살피는 것은 조선 정치의 실체를 이해는 것과 직결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조선의 선비들은 어떤 경로를 거쳐 관료가 되었으며, 관료 생활 중 누가 언론기관에 배치되었으며, 어떠한 언론 활동을 하였는가를 살피는 것이 요구된다. 조선 사회에 태어나서 학문에 뜻을 세우고, 과거에 응시한 뒤 언론기관에 종사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자.

3. 언론 관료가 되기까지

조선 사회에서 학문에 종사하지 않으면 의무 군역의 징발 대상이었고, 또 문치주의 사회에서 관료로 출세하는 길은 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길밖에 없었으므로 교육열은 매우 높았다. 이로써 국가에서는 적은 교육비로서 충분히 국가가 의도하는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조선의 교육은 크게 관학과 사학으로 나누어진다. 관학 교육기관으로는 성균관·4부학당·종학·잡학·향교 등이 있으며, 사학 교육기관으로는 서재·서당·가숙(家塾) 등이 있다. 이중 관학보다는 사학이 조선의 교육을 주도하였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모든 경비를 국고에서 지급하는 관학보다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사학에 매력을 느꼈던 것이다.

사학이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학교제도와 과거제도가 곧바로 연결되지 않은 이유이다. 학교제도와 과거제도가 일원화될 수 없었던 까닭은 무엇보다 조선 사회가 양반 관료제 사회였기 때문이었다. 양반들은 구태여 평민들과 어울려 향교에서 공부하려 하지 않고 사학이나 자기 집에서 별도로 공부하려고 하였다.

양반 중에서도 권력을 가진 소수의 문벌 양반만이 학당과 성균관 교육을 비롯하여 과거 시험도 사실상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 수시로 실시하는 별시의 경우도 실제로 서울 양반들이 독점하다시피 하였다. 시험이 가까워서 갑자기 발표되는 시험일을 일반인이나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알기 어려웠으며, 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제약으로 합격하는 것이 불리하였다. 한편 국가에서는 지배층인 양반의 요구에 밀려 원칙대로 학교제도와 과거제도를 운영해 나갈 수 없기도 하였다. 🏰

〈다음호에 2편이 이어집니다.〉

홍성의 전설
+
명당 산소터 전설

시집간 딸과 명당 산소터에 얹힌 전설 (출가외인 딸은 시댁 편일까, 친정 편일까?)

김 정 현 (동화작가 · 내포구비문학연구소장)



▲ 전설이 전해오는 부창산 담양전씨 선대 산소 (맨 위쪽 산소)

우리 주변의 민담이나 전설을 공부하다 보면, 유난히도 풍수지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다. 그중에서도 조상들의 산소자리와 관련된 얘기들을 심심치 않게 접하곤 한다. 조상의 산소를 좋은 곳에 모심으로써 후손들이 부(富)를 얻고, 입신양명(立身揚名)하여 가문을 빛냈다는 이야기들이다.

특히, 집안의 권력을 이용하여 남의 명당터를 빼앗은 이야기가 곳곳에 전해온다. 가야산 기슭에 자리 잡은 남연군 산소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대원군은 명당터에 이미 자리 잡고 있던 가야사라는 절을 폐사시키고, 그 자리에 아버지 남연군 산소를 이전한 일화는 유명하다.

우리고장의 명산인 용봉산에 위치한 천년고찰 용봉사도 비슷한 수난을 당한 사찰이다. 당시 이 지역의 권력자 집안에서 사찰을 아래쪽으로 이전시키고, 그 자리에 조상의 산소를 썼다고 전해온다.

이처럼 풍수지리를 신봉했던 옛날에는, 좋은 산소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집안간의 갈등이 전설로 형상화되어 전해오는 경우도 더러 있다. 특히, 사돈을 맺은 양쪽 집안에서 시집간 딸의 계략에 의해 친정으로 향하던 복을 시댁으로 빼앗겼다는 전설이 재미있게 전해온다.

물 흐른 자리가 명당?

— 홍성군 은하면 대율리, 부창산 —

홍성군 은하면 대율리에 부창산이 있다. 이 산의 대부분은 담양전씨 문중 소유이다. 이 넓은 산 여기저기에 담양전씨 조상들의 산소가 많이 모여져 있다.

이곳 부창산 맨 위쪽에 담양전씨 윗대 선조의 산소가 있다. 이 산소에 담양전씨와 연산서씨 선조 사이에 얹힌 전설이 전해온다.

어느 옛날, 연산서씨 집안에서 초상이 났다. 살림이 넉넉했던 연산서씨 집안에서는 유명한 지관을 초청하여 묘 자리를 잡았다.



그 묘 자리가 지금의 은하면 대울리 부창산 동쪽 기슭이다.

묘 자리는 기가 막히게 좋은 자리였다. 보는 사람들마다 아주 좋은 명당자리라고 한마디씩 주고받았다. 연산서씨 집안에서도 장례준비를 하면서 아주 기가 막힌 명당자리라고 좋아했다.

잘하면 당대 발복할 수도 있는 자리라는 기대가 컸다. 연산서씨 집안에서는 장례를 모시기 위해 며칠 전부터 묘 자리를 미리 파놓았다.

장례를 모시는 날 아침 일찍 집안사람들이 묘 자리를 둘러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묘 자리에 물이 흥건하게 젖어 있었다. 아주 좋은 명당자리라고 잡아놓은 묘 자리에서 물이 흐르고 지나간 것이었다.

“히히, 그거 참. 산소자리로서는 아주 좋은 명당인데……. 하필이면 이 자리에 물이 흐르고 지나간단 말인가!”

아무리 명당자리라고 해도 물이 흐르는 곳에 조상의 묘를 쓸 수는 없었다. 연산서씨 집안에서는 너무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다른 곳에 자리를 잡아서 묘를 썼다.

그 뒤로 몇 년 후에 담양전씨 집안에서 초상이 났다. 죽은 사람은 연산서씨 집안에서 담양전씨 집안으로 시집간 딸의 남편이었다.

딸은 부랴부랴 친정으로 찾아왔다. 집안이 가난하여 마땅히 남편의 산소를 쓸 곳이 없다는 하소연이었다. 몇 년 전에 물이 나와서 산소를 쓰지 못했던 자리라도 한 곳 달라는 부탁을 했다. 아마도 당시에 담양전씨 집안은 가정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못했던 것 같다.

연산서씨 집안에서는 물이 흐르는 곳을 산소자리로 주기는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런 자리라도 감지덕지하다는 딸의 간청에 그 자리에 산소를 쓰도록 했다. 그 뒤로 세월이 흐르면서 담양전씨 집안은 살림이 넉넉해지고 자손들도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다.

이후 세월이 흐르면서, 명당자리에 물이 흐른 것은 연산서씨 집안에서 담양전씨 집안으로 시집간 딸의 계략이었다는 것을 알

게 되었다.

딸은 초상이 난 친정에 와서 심부름을 하던 중에 명당자리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장례모시기 전날 밤에 몰래 물을 길어다 묘 자리에 부어놓고 물이 흐른 것처럼 만들었다는 것이다. 친정에서는 이런 딸의 속셈을 모르고 산소자리를 내준 것이었다.

이 전설과 관련된 영향인지는 몰라도, 담양전씨는 후대로 내려 오면서 가문이 번창했다.

홍성군 구항면 내현리에 ‘꽃밭미’라는 마을 이름도, 담양전씨 가문과 관련이 있다. 꽃밭미라는 이름은 담양전씨네 전운상·전일상·전천상 3형제와 관련되었다고 전해온다.

이들 3형제는 담양전씨 가문이 가장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에 높은 무관 벼슬을 하던 형제들이다. 이들 3형제가 고향에 가마를 타고 올 때면, 마을사람들의 환영하는 횃불이 꽃밭 같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지명유래담이 전해온다.

여덟 명의 병마절도사가 나온 명당터

- 홍성군 장곡면 천태리, 만궁암 -

우리고장 홍성군 장곡면 천태리에 ‘팔병사(八兵使) 묘 자리’라고 하는 유명한 명당자리가 전해온다. 이름 그대로 여덟 명의 병사(조선시대 각 지방의 병마를 통솔 지휘하는 종2품의 무관, 병마절도사의 약칭임)가 나왔다는 명당자리라고 전해온다. 이곳에 묘를 쓰고 나서, 그 집안이 번창하고 8대까지 병사가 나왔다는 명당자리라고 한다.

팔병사 묘 자리는 함양박씨 며느리 전설로 유명하다. 이웃마을 함양박씨 집안에서 함평이씨 집안으로 시집 온 딸과 관련한 전설이다.



▲ 천태리 팔병사 묘 자리



▲ 팔병사 묘 자리에서 바라본 천태리 들녘

옛날, 이웃마을에 사는 함양박씨 가문에서 이곳 천태리 함평이씨 가문으로 시집 온 딸이 있었다.

어느 날, 마을 뒤편 천태산에 사는 스님 한분이 천태리로 탁발을 나왔었다. 스님은 함평이씨 대문 앞에 서서 목탁을 두드리며 시주를 부탁했다.

함평이씨 덕으로 시집 온 며느리 박씨는 곡식을 큰 그릇에 듬뿍 담아서 스님의 바란에 넣어주었다. 시주를 많이 얻은 스님은 너무 고마워서 발걸음을 멈추고 건너편 산기슭을 가리켰다.

“저 자리는 박씨 가문에서 묘를 쓰면 9대 정승자리이고, 이씨 가문에서 묘를 쓰면 8대 정승자리입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박씨는 스님이 알려준 명당자리를 혼자서 마음속에 꼭꼭 숨겨 놓았다. 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그 자리에 산소로 쓰려고 단

단히 마음먹고 있었다. 세월이 흐른 후에 아들과 손자와 후손들이 입신양명하여 가문을 빛낼 것이라 확신하며 꿈에 부풀어 있었다.

그런데 박씨의 기대는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상황이 되었다. 박씨의 친정에 초상이 나서 묘 자리를 잡았는데, 하필이면 스님이 가리켰던 그 자리였다. 박씨 집안에서는 명당자리에 묘 자리를 잡고 하루 전에 묘광을 파놓았다. 이제 하룻밤만 자고 나면 그곳에 산소를 쓸 것이 자명했다.

박씨는 마음이 후끈 달아올랐다. 명당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궁리 저궁리를 하다가 무릎을 탁 쳤다.

‘그래, 바로 그거야!’

박씨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밤이 되자 집 앞 샘에서 물을 길어 명당자리에 날랐다. 밤새도록 물을 날라서 산소자리에 가득 퍼다 부었다.

아침 일찍 산소자리에 올라갔던 박씨 집안에서는 깜짝 놀랐다. 땅속에서 물이 솟아나와 흥건하게 고여 있는 모습이었다.

“이걸 어찌나? 아무리 명당인들 물이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물이 나는 곳에 산소를 쓸 수는 없는 일이야.”

결국 박씨네는 명당자리에 잡았던 산소자리를 포기했다.

세월이 흐른 후에, 박씨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박씨의 계획대로 명당자리에 남편의 산소를 쓰게 되었다.

이후에 함양 이씨 후손들은 대대로 입신양명하면서 높은 벼슬 자리에 올랐다. 스님의 말대로 집안에 대대로 8명의 병사가 나왔다고 한다.

세월이 한참 흐른 다음에, 함양박씨 집안에서는 시집간 딸에게 속은 것을 알았다. 함평이씨 집안으로 시집간 딸의 계략에 속아서 명당자리를 빼앗긴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너무도 속이 상한 함양박씨 집안에서는 딸만 낳으면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한다.

팔병사 묘 자리는 ‘만궁암(挽弓岩)’이란 명칭도 갖고 있다. 묘 자리가 있는 지형이 활시위를 힘껏 뒤로 당겨서 활 쏘는 모습을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금 닭이 알을 품고 있는 명당 중의 명당터

- 홍성군 갈산면 상촌리, 여술마을 -

홍성군 갈산면 상촌리 여술마을에 명당터 산소가 전해온다. 이 명당터는 갈산에 맨 처음 정착한 안동김씨의 선조 산소이다. 이 산소에도 재미있는 전설이 전해온다.

이 전설은 갈산면 가곡리 노상마을에 전해오고 있다. 노상마을에 전의이씨의 입향조인 명준이 잡아놓았던 산소와 관련한 이야기다. 전의이씨 선조인 명준은 풍수지리에도 능했고, 사람의 인상을 보고 장래를 내다볼 줄 아는 혜안이 있었다.

명준이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여 살고 있을 때, 김씨라는 젊은이가 갈산으로 이사를 왔다. 고향에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 새로운 땅을 찾아온 것이었다. 처음 타향으로 이주해온 김씨는 터를 잡고 살기가 힘들었다.

명준은 김씨의 됃됨이를 보고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라고 믿었다. 김씨의 장래를 믿고 자신의 장성한 딸과 혼인을 시켜서 사위로 삼았다.

명준은 늙어감에 따라서 죽은 후에 묻힐 묘 자리 하나를 잡아 두고 있었다. 묘 자리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금계포란형(金鷄抱卵形)이었다. 그야말로 금 닭이 알을 품고 있는 명당 중의 명당이었다.

명준은 자신이 잡아놓은 묘 자리를 직접 실험해 보고 싶었다. 때마침 묘 자리 앞마을에 김씨와 결혼한 딸이 살고 있었다. 명준은 딸의 집으로 찾아가서 싱싱한 계란을 한개 구해오라고 부탁했다.

명준의 딸은 아버지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명당자리를 잡아놓은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부엌으로 들어가서 계란을 삶아서 명준에게 갖다 주었다.

명준은 딸이 구해온 계란을 갖고 묘 자리로 올라갔다. 이곳에 계란을 묻어놓고 밤이 되기를 기다렸

▼ 전설 속의 주인공 산소





▲ 산소 아래 인공 연못
(멀리 보이는 산에 산소가 있다)

다. 묘 자리 속에서 새벽녘에 닭 우는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밤이 되고 축시(새벽 1시에서 3시)가 되었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닭 울음소리가 들리기를 학수고대하는 사이에 날이 밝아왔다.

‘아, 이곳은 금계포란형의 묘 자리가 아니구나. 내가 묘 자리를 잘못 잡았구나.’

명준은 속으로 실망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한편, 김씨와 살고 있던 딸은 몇 년 후에 친정으로 찾아왔다. 시아버지 산소를 이장해 와야 할 텐데 가난한 살림살이에 산소자리를 구할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친정아버지가 잡아놓았던 묘 자리에 시아버지 산소를 쓰게 해달라고 사정했다.

명준은 지난번에 실험해보고 실망했던 묘 자리이므로 크게 아까워하지 않고 허락했다. 딸은 즉시 시아버지의 산소를 이곳으로 옮겨왔다.

그 뒤로 김씨 집안은 대대로 번창하기 시작했다. 김씨 후손들 중에서 여러 명의 정승 판서가 나왔고 재산도 불어났다. 반면에 명준의 자손들은 자꾸만 가세가 기울어져갔다.

세월이 흐른 후에 딸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된 명준 가문에서는 속상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김씨 후손들이 살고 있는 쪽을 쳐다보기도 싫었다.

버선 대님을 치는데 안쪽으로 주름을 잡지 않고, 바지 주름을 바깥쪽으로 쳤다. 이는 김씨들이 평평거리고 사는 마을을 쳐다보기도 싫다는 미움의 표시였다.

노상마을에서는 금계포란형으로 전해오고 있는데, 실제로는 갈마음수형(渴馬飲水形)이라고 한다. 목마른 말이 물을 마음껏 마시는 형국의 명당터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산소 아래는 말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작은 연못을 파놓기도 했다.

복호형(伏虎形)의 명당 산소터

- 홍성군 갈산면 내갈리 -

홍성군 갈산면 내갈리 피골봉 남쪽 기슭 내갈마을 뒷산에는 아담한 소나무 숲이 있다. 이곳에는 당시 홍성지역의 세력가였던 안동김씨 선조인 백봉 김수빈과 그의 며느리 산소가 있다.

백봉 김수빈(1626년~?)은 병자호란 당시에 강화도에서 순절한 선원 김상용의 손자이다. 갈산지역에 최초로 자리 잡은 수북 김광현의 아들이며 면천군수를 지냈다.

백봉 김수빈의 산소는 호랑이가 누워있는 복호형(伏虎形) 명당터로 알려졌다. 마을에 구전으로 전해오는 바에 의하면, 백봉 김수빈은 살아생전에 복호형 명당터가 있는 산을 구입하여 자신의 산소자리를 미리 마련했다고 한다.

특이한 것은 김수빈 산소 바로 위쪽에 며느리의 산소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윗대 산소가 위쪽에 위치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경우이다. 이는 다른 종친들이 이곳에 산소를 쓰



▲ 산소가 위치한 솔밭



▲ 백봉 김수빈 산소

지 못하도록 며느리가 먼저 타계하자 산소를 미리 조성한 것이라고 한다.

산소 아래로는 목마른 호랑이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작은 방죽도 조성하였다. 풍수지리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인공적으로 보완해주는 비보풍수인 것이다. 산 위에서 흘러내리는 대깃냇갈 물줄기를 끌어들이어 조성했던 방죽은 논으로 변했다.

김수빈 산소 바로 아래에는 주인 모르는 비석 받침대가 방치되어 있다. 어떤 연유로 긴긴 세월동안 연고 없는 비석 받침대가 이곳에 버려졌는지 알 길이 없다.

마을에 전해오는 구전과 갈산면지의 기록에 의하면, 김수빈이 이곳에 산소자리를 마련하면서 타인의 산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시켰다고 한다. 아마도 타의에 의해 다른 곳으로 이전한 산소 주인공의 비석 받침대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특이한 것은 옛날부터 비석 받침대에 고여 있는 물이 피부병에 특효약이라는 속설이 마을에 전해오고 있는 것이다. 비스듬하게



▲ 버려진 비석 받침대

놓여있는 비석 받침대의 움푹 파인 곳에는 항상 물이 고여 있다.

옛날에 옷에 올렸거나 피부병이 있는 사람들은 이 물을 발랐다고 한다. 실제로 80세가 넘는 어른들은 어린 시절에 이런 모습들을 자주 목격했다고 한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비상식적이고 허무맹랑한 속설이다. 혹시 이곳에서 밀려난 산소주인공의 녀이 비석 받침대에 서려있다고 생각한 것일까?

주변 역을 옮겨온 산소터

— 홍성군 홍동면 원천리 —

홍성군 홍동면 원천리에 재미있는 전설 하나가 전해온다. 함경 관찰사를 역임한 황흙의 산소자리와 관련된 전설이다.

황흙의 산소가 있는 마을 이름이 ‘세천’이다. 옛날에 세천역말이 있던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세천이라는 마을 이름의 유래가 황흙의 산소와 관련이 있어서 흥미롭다.

황흙이 세상을 떠나자 후손들은 유명한 지관을 초청하여 산소 자리를 찾아다녔다. 초청된 지관은 여러 곳을 찾아다니던 중에, 원천마을 청광산 기슭에 묘 자리를 잡아주었다.

이 산소자리의 형국은 장군전마형(將軍轉馬形)이었다. 장군이 지친 말을 쉬게 하고 새로운 말로 갈아타는 형국의 명당터였다.

그런데 산소자리를 잡고난 지관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모든 것을 갖추었는데 딱 한 가지가 부족하여 아쉽다는 것이었다.

“그 부족한 한 가지가 무엇인가요?”

후손들이 진지하게 물었다. 지관이 부족한 부분을 설명했다.

장군전마형의 명당이 완벽해지려면 여러 가지 부속물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군 주변에 부하도 있어야 하고, 보검 등의 칼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병사와 훌륭한 말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갖춰진 산소자리는, 그 후손 중에서 명장이나 명 지휘관이 나온

다는 설명이었다.

그런데 다른 모든 것은 잘 갖춰졌는데, 아쉽게도 훌륭한 말에 해당되는 주변 지세가 약하다는 것이다. 이런 명당터는 주변에서 말발굽소리가 항상 떠들썩하게 들려야 제 기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후손들은 낙담하며 해결방법을 물었다. 지관의 대답인 즉,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다. 그것은 산소자리 아래로 말들이 오고가는 역(驛)을 옮겨오면 된다는 설명이었다.

역은 항상 말들이 여러 마리씩 대기하는 곳이고, 관리들이 오고가며 갈아타는 말발굽소리가 요란하기 때문이었다. 참으로 이치에 맞는 설명이었다.

지관이 제시한 해결방법은, 일종의 비보풍수였다. 비보풍수란, 어떤 지형이나 산세가 풍수지리상으로 부족하면 이를 보완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다.

지관의 설명을 듣던 후손들은 무릎을 탁 쳤다. 그런 문제라면 너끈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의 권세가 막강한 집안에서는 크게 어려운 해결방법이 아니었다.

황씨의 산소를 정한 후손들은 인근지역에 있던 역을 이곳으로 옮겨왔다. 황씨 집안에서 막강한 권세를 이용하여 역을 세천마을로 옮겨온 것이다. 다시 옮겨온 역은 '세천역'이라고 불렸다.

세천역의 유래가 황씨 선대 산소와 관련된 전설이어서 흥미롭다. 이 전설대로라면, 황씨 집안의 권세가 얼마나 막강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기행문

역사책 속을 거닐다

정명순 (물양금시문학회 회장 · 시인)



▲ 아카마신궁

일본 속의 한민족사 탐방을 다녀와서 Ⅱ

조선통신사가 머물던, 시모노세키의 아카마신궁(赤間神宮)

시모노세키는 바다의 폭이 1.5km 정도의 해협을 사이에 두고 큐슈의 북쪽 지방인 기타큐슈와 연결되는 곳으로, 이곳을 통해야 세토나이카이(内海)로 들어갈 수 있어 '일본의 수에즈'라고도 불린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상 교통의 요지로 중시되었다. 조선전기에는 이곳에 조선 상인이 거주했다는 기록도 있으며, 쓰시마를 거쳐 온 '조선통신사'가 머물기도 했다. 아카마신궁은 당시 아미타지(阿彌陀寺)라는 절이었는데 조선통신사를 기념하는 비가 세워져 과거의 기억을 새기고 있었다.



▲ 조선통신사 기념비



▲ 오사카성의 천수각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근거지, 오사카성(大阪城)

삼국시대의 흔적을 돌아보면 교류와 우호의 흔적이 대부분이다. 두 나라는 조선전기까지 비교적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막부정권이 들어서고 대립이 심화되면서 전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기억하는 일본인일 것이다. 우리에게는 악연이지만 일본에서는 동경의 대상인 도요토미. 그는 바늘장수라는 천한 신분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인물로 신사까지 만들어지며 일본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도요토미라는 이름이 역사에 남을 수 있었던 것은 오다 노부타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출신을 가리지 않고 능력이 있으면 과감하게 발탁했던 것이다. 오다가 1582년 전국 통일을 앞두고 암살당한 뒤 모든 권력은 도요토미에게 넘어갔다.

오사카성은 1583년부터 쌓기 시작하여 15년에 걸쳐 지어졌는

데 도요토미는 성에서 살아보지 못하고 죽었으며, 후에 부인과 아들이 성에 살았다. 성 안에 천수각(天守閣)을 세운 것은 오다 노부나가의 본거지 아즈치성(安土城)이 처음이었는데, 도요토미가 오사카성에 두 번째 천수각을 지었다. 그는 아즈치성보다 더 나은 성을 만들기 위해 5층 누각 전체를 금과 은으로 칠했으며 화장실까지 금으로 장식했다고 한다.

도요토미가 죽은 뒤 1615년 여름에 벌어진 도쿠가와 이에야스와의 전투에서 패배하며 오사카성은 폐허가 되었고, 도요토미의 아들이 자결하면서 도요토미의 꿈은 물거품이 된다. 이후, 에도 막부에서 복원을 하였으나 세 번이나 벼락을 맞았고, 1665년 두 번째 벼락으로 천수각이 불타버렸다. 그러다 1928년 시민들이 150만 엔의 성금을 모금하여 복원 공사를 했다고 한다. 천수각은 1931년 철근 콘크리트로 완공하였는데 겉모습과는 달리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예전의 모습을 찾을 수는 없고 도요토미의 박물관처럼 꾸며져 있다. 역사에 이름을 남기겠다던 그의 꿈은 이루어진 것인가.

임진왜란의 전진 기지, 큐슈의 나고야(名護屋) 성터

전국을 통일한 도요토미는 조선에 사신을 보내 명을 침략하기 위한 길을 내놓으라는 협박을 한다. 조선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협상이 결렬되자 1591년 8월 조선침략 계획을 전국에 알리고 나고야를 전진기지로 성을 축조한다. 임진왜란 중 나고야는 일본의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일본의 성은 둘레에 물길을 만든 1차 방어선 해자를 만들고, 안으로 2중, 3중으로 겹겹이 성을 구축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성안에는 군인들만 살았으며 성이 함락되어 성주만 잡으면 전쟁은 끝이었다. 이런 일본인들에게 임진왜란 때 선조가 경복궁을 버리고 피난 간 사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고, 일본의 작전을 흔들어놓는 계기가 되었다.



▲ 나고야 성터

도요토미가 죽은 후 성은 허물어졌는데, 크리스티교도들의 난인 시마바라의 난 직후에도 막부가 무장봉기 발생 시 성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허물었다는 설, 에도 막부가 외교 관계를 개선하고자 성을 허물었다는 설도 있다. 성터 가까이 나고야성 박물관이 있는데 임진왜란을 '침략전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 나고야성 정상부

지금은 아름다운 정원으로 꾸며진 나고야성. 이곳을 찾는 일본사람들은 평화로운 공간 곳곳에서 새어 나오는 전쟁의 숨소리를 들을까. 그 소리가 하는 말을 어떻게 가슴에 새길까.



▲ 니조성

에도 막부를 세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머물던, 교토의 니조성(二條城)

670년 일본이라는 국호가 제정되고 천황제가 확립되면서 메이지 유신까지 천년의 고도였던 교토, 우리나라의 경주, 중국의 시안과 비슷한 도시이다. 니조성은 에도를 근거지로 막부를 세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왕이 머물고 있는 교토를 방문할 때 머물기 위해 세운 숙소이다. 막부정치는 왕이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무사의 우두머리인 쇼군이 가지고 있는 체제였다. 메이지 유신으로 모든 권력이 왕에게 돌아가게 되면서 에도 막부는 붕괴하게 된다.

막부시대는 건축에도 사회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건물은 음침하고 입구와 방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없게 미로로 구성되었을 뿐 아니라, 마당에는 잔돌을 깔고, '휘파람새 마루'를 깔아 침입자를 소리로 알 수 있도록 꾸며졌다. 언제 어디서 칼끝이 자신을 향할지 모르는 불안함이 집안 곳곳에 배어 있었다.

▼ 니조성 해자



일본 도자기의 신, 아리타의 이삼평 도예지와 도잔(陶山)신사



▲ 이삼평 14대 후손

임진왜란의 결과 가장 피해를 입은 나라는 조선이었다. 일본은 오히려 전쟁 이후 문화적 발전을 누리게 되는데 그 중심에는 조선인들이 있었다. 그 중 일본 도자기의 신으로 불리는 사람이 바로 이삼평이다. 인질로 끌려간 이삼평은 아리타의 도조(陶祖)로 지금도 14대 직계 자손이 도자기를 만들고 있다.

이삼평은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출신으로 알려졌는데 일본에서 처음으로 백자를 만들었으며, 이것이 아리타도기의 출발이다. 도잔신사에는 '도조 이삼평'을 제신으로 모시고 있는데, 일본에서 조선인을 신사에 모시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인지 신사에는 천황과 사가번의 시조도 함께 있다. 1917년 아리타 도자기 300년을 기념하며 '도조 이삼평비'가 세워졌으며, 매년 5월 4일에는 '도조축제'가 열린다고 한다.



▲ 도조 이삼평비



▲ 도잔신사

조선을 두고 대립한 청과 일본의 전쟁, 청 · 일강화기념관



▲ 시모노세키조약 체결 장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운 에도 막부는 조선과 화친을 위해 노력했고, 두 나라의 관계는 나아지는 듯 했다. 그러나 일본은 대륙침략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제국주의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 과정에서 일본이 조선을 점령하는데 가장 걸림돌이었던 청과 전쟁을 벌이게 되고,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청과 조약을 체결하고 조선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다. 그 조약이 바로 ‘시모노세키조약’이다. 청의 대표 리홍장은 이곳까지 와서 조선을 포기하고 타이완과 요동을 줄 것이며, 배상금을 물겠다는 굴욕적인 조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다. 기념관에는 조약 체결 당시의 공간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었다. 조선의 운명이 탁자 위에서 결정되고 있었다니, 그것도 우리와는 상관없이.



▲ 청 · 일강화기념관



▲ 벤도

과거를 딛고 미래로, 오사카의 백두학원 건국학교

1945년 해방 이후 일본에 남은 재일동포들의 삶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조규훈, 이경태는 '백두동지회'를 조직하고 1946년 3월 '백두학원'을 설립하였다. 조국을 일으켜 세운다는 신념을 담아 '건국'이라는 학교명을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건국공업학교와 건국고등여학교로 시작하여 현재는 유·초·중·고가 모두 증설되었다.

학교를 둘러보고 학생들의 사물놀이 공연을 볼 때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뜨거운 피가 곳곳에서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 낫또

5박 6일의 일정동안 식사는 거의 벤또였다. 오랜 무인정권으로 전쟁이 잦았던 일본에서 군인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기위해 혹은 전투에 나가기 위해 도시락이 발달하였다. 이런 문화는 오늘날까지 혼자, 각각이라는 식사 문화를 만들었던 것이다.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집으로, 가장 많이 쓰는 말은 쓰미마생(미안합니다), 돼지고기 샤브샤브를 먹는, 낫또지만 정갈한 거리, 속을 드러내지 않는, 은둔형 외톨이가 많은, 작은 차를 선호하는, 대중교통비가 비싸고 주차장도 거의 없는, 깨끗해야 복이 온다고 믿는, 젓가락을 가로로 놓고 숟가락은 쓰지 않는, 온돌이 없고 그래서 온천이 발달한 일본. 이렇게 다르니 그렇게 다를 수밖에, 역사를 공유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대화의 시작이 아닐까. 🍱

나의 삶 나의 예술
+
도예가 이능세씨

글·조성미
(홍성문화 편집위원장)



“흙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낸다는 것은 축복받은 일”

전통적 아름다움에 현대적 요소 접목 새로움 추구

• ————— • ————— •

우묵한 토기, 깨진 기와조각, 굽 달린 술잔 ...

박물관에서 이런 오래된 유물들을 바라보는 일은 어떤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것보다 특별한 감흥이 있다. 딱히 잘 만들겠다는 의도가 없는 상태에서 노동으로 숙련된 손끝에서 무심코 탄생한 형태와 선, 재료의 질감 등 오래된 그릇에서 우러나오는 고대인들의 미의식을 읽어내는 일은 흥미롭다.

가령 암사동 선사유적지에서 발견되었다는 빗살무늬토기에 반복적으로 새겨진 기하학적인 디자인, 손으로 주무른 듯 장난스럽고 양증맞은 토우, 좌우 비대칭의 일그러진 토기 항아리의 풍만한 선 같은 것들 말이다. 하루 종일이라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래 바라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절로 고요해지는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힐링을 얻곤 한다.

인간이 흙으로 그릇을 빚은 역사는 빗살무늬토기를 만들던 아득한 석기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흙과 물과 불의 예술인 도예는 자연을 닮았다. 차진 점토와 물이 풍부한 땅인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도자기 기술이 발달했다. 우리나라의 고려청자와 조선백자는 세계의 도자기 애호가들이 극찬하며 소장하고 싶어 할 만큼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지난겨울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성화를 담은 달 항아리는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다. 백자 달 항아리는 우리 민족이 추구하는 담백한 미의식이 함축된 아이콘이 됐다. 도자기는 눈으로만 보는 회화와는 달리 손으로 어루만지며 그 질감까지 직접 느껴볼 수도 있고, 찻잔이나 화병으로 가까이에 두고 벗 삼을 수 있는 친근한 예술품이다.

초등학교 교사이면서 도예가로 꾸준한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이능세씨(65세)는 이미 지역에 정평이 나있는 도예가다. 지난 2015년 8월 당진 성당초등학교 교장을 끝으로 정년퇴임하고 한가로운 전원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이능세 작가를 그의 작업실에서 만났다.

작가는 홍성읍내에서 살다가 20년 전 이곳으로 이사했다고 한다. 주택과 작업실로 쓰는 별채가 딸린 그의 집은 용봉산 정상능선을 따라 즐비한 바위들이 굽어 내려다보이는 상하리 상산 중턱 소나무 숲에 숨은 듯 자리 잡고 있다. 용봉초등학교에 근무할 때 용봉산을 좋아해 자주 오르내리다가 수려한 경치에 반해 이곳에 아주 터를 잡았단다.



인터뷰는 날이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겨울 동안 문을 닫아둔 작업실을 치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유례없는 강추위가 좀 수그러든 3월 초순 선생님께서로부터 와도 좋다는 전화가 왔다. 친절하게 카톡 메시지로 약도까지 보내주셨다.

작업실은 생각보다 고도가 높은 산 중턱 숲속에 숨은 듯 자리 잡고 있었다. 가파른 오르막길을 운전하면서 “날 풀리면 오라”는 이유를 그제야 알 것 같았다. 마을과 그리 멀지 않은 곳이지만 막상 들어와 보니, 높고 아늑해 ‘은거’라는 말이 저절로 떠올랐다.

공주교대 공예 동아리에서 만나 결혼하고, 교직의 길을 함께 걸어온 부인 조계연씨와 나란히 문밖까지 나와 맞아주셨다. 부부는 슬하에 딸 셋을 두었는데 부모님의 뒤를 이어 교단에 선 따님도 있고, 막내가 미술을 전공했단다.

집안 곳곳에 걸어 둔 아버지와 딸의 작품들이 어우러진 2층 집은 소박한 갤러리 같았다. 크고 작은 그림과 도자기 소품들 하나 하나가 가족들의 행복한 시간과 사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다. 소나무와 바위가 어우러진 잘 생긴 용봉산의 풍경이 한 눈에 들어오는 2층 거실의 차경은 부러울 정도였다.



집 구경을 마치고 작업실로 자리를 옮겼다. 기계식 가마가 설치된 작업실은 말 그대로 흙을 쌓아두고 치대고 물레질을 하는데 최적화된 작업 공간이었다. 남들은 정년퇴직하고 남아도는 시간을 어찌 써야할지 걱정하는 지인들이 많은데 작가는 배워둔 도예작업 때문에 퇴직 이후의 생활이 오히려 즐겁고 보람 있다고 했다.

작가는 구항면 마온리에서 태어나 홍성고등학교를 졸업(26회) 하고, 공주교육대학교에 진학했다. 졸업 후 발령이 적체되어 2년의 공백 기간에 단국대학교 요업공예과 3학년에 편입하여 도예의 길을 걷게 된다. 그는 원래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에 진학하여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던 차에 운 좋게 2년의 시간을 벌게 되었고, 미술대학에 편입을 했던 것이다.

그림을 향한 그의 열정은 어릴 적부터 아주 뜨거웠던 것 같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의 그림은 단박에 선생님들의 시선을 잡아 끌 만큼 남달랐었다. 홍성고등학교 재학 때는 학교를 휴학하고, 세운상가에서 초상화 작가로 활동하던 사촌 형 밑에서 초상화를 배우기도 했다. 그림을 위해 학업을 중단하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쉽지 않은 결정인 만큼 미술에 대한 작가의 뜨거운 마음이 짐작 되는 일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농사를 지어 어렵게 3형제를 뒷바라지 하시던 부모님의 어려움을 알기에 학비가 많이 드는 미술대학 대신 교육대학을 선택했다. 교대에 다니면서도 손재주가 좋았던 그는 공예동아리 활동을 하며 목공예 활동을 주로 많이 했다.

단국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한민국미술대전과 대한민국공예대전에 차례로 입선하여 작가의 길을 갈 수도 있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교육대학 졸업자는 의무적으로 5년간 교직에 복무해야하는 의무가 있었기에 낙향하여 오서초등학교에 첫 발령을 받게 되었다. 당시에는 전도유망한 작가의 길을 접어야하는 것이 못내 안타깝고 속상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때 교직을 선택했던 것이 잘된 일이라 생각한다고 그는 회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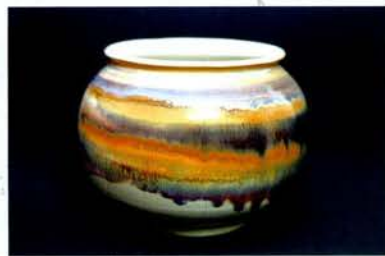


당시만 해도 지방에서 작품 활동을 이어가는 일은 쉽지 않았다. 특히, 도예는 더욱 그랬다. 전시회나 공모전 같은데 출품을 하려고 해도 작품을 운반하고 준비하는 여러 일들이 일단 교통편부터 제약을 받다 보니 중앙 화단에서의 활동은 많이 접어야 했다. 시골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틈틈이 취미 활동 정도의 작업으로 만족해야 했다.

그는 1985년 단국대학교 대학원 응용미술과를 졸업하는 등 연구와 작품 활동을 쉬지 않았다. 한국미술협회와 충남미술대전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의 화단을 더욱 풍성하게 이끌었다. 특히, 그가 주도하여 창립한 <오색회>는 5명의 개성 있는 젊은 작가들이 합심하여 정기적인 전시회를 여는 등 정체된 지역의 화단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로 구성된 <오색회>는 서양화, 한국화, 도예 등 분야는 조금씩 다르지만 같은 교육대학 동문이면서 홍성에서 활동하고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는 동질성뿐 아니라 각자 개성 있고, 수준 높은 작품을 선보여 단박에 주목을 받았다.

작가는 이곳 용봉산에 이사하고 개인 작업실을 갖게 되면서 더욱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게 된다. 그는 2009년 <오색전>에서 대추나무 껍질처럼 표면이 갈라진 트임 기법 분청도자기를 선보였다. 점토의 물성을 활용한 트임 기법은 안과 밖의 수분 함량을 다르게 하여 건조과정에서 표면에 생기는 독특한 트임을 그대로 살려 흙의 질감을 극대화시키는 실험적인 작업이다.





청년작가 시절 그는 전통적인 도자기 작업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재료와 성형 방법에 구애받지 않는 현대 도자기 작업을 두루 섭렵했다. 화가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위해 다양한 색과 방법을 동원하듯 도예 역시 다양한 재료와 색, 실험적인 방법들을 작품에 적극 도입하는 것은 같은 이치라는 설명이다.

청년작가 시절 치열했던 실험정신과 개성을 추구하던 시기를 거쳐 오며, 지금은 한껏 힘을 빼고 완숙한 시기에 들어섰다. 몸담았던 교단에서 물러나 몸과 마음이 자유로워졌으며, 시간적인 여유를 얻게 된 작가에게 요즘은 미뤄뒀던 작품에 몰입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환경이다.

요즘 들어 작가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바탕으로 그 위에 현대적인 요소를 접목시켜 전통적이면서도 새롭고 아름다운 작품을 구상하고 있다. 생계와 자녀양육, 부모봉양 등 여러 가지 세속적인 의무와 속박으로부터 놓여나 예술가로서의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지금, 오직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탐닉할 수 있는 자유로운 상태만으로도 작가는 충만하게 차올라 있음이 느껴졌다.

작가는 누구보다도 이 봄을 기다려온 듯하다. 예년에 없던 강추위가 물러가고 용봉산 계곡에 얼음이 풀리자 겨우내 닫아두었던 작업실 문을 활짝 열었다. 용봉산이라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흙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축복받은 일이라고 작가는 말한다. 흙과 물과 불의 힘을 조율하며 그릇을 빚어내고 생명을 불어넣을 것이다. 인생도 예술도 완숙의 단계에 접어든 작가의 앞으로의 활약에 기대를 걸어본다.

사죽을 하나 보탠다. 그것은 기타연주에 관한 것이다. 먼저 작가의 집을 방문했을 때 딱 봐도 예사롭지 않은 전자기타가 응접실 한편에 떡 버티고 있어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기타는 좀 의외다”며 물었더니 작가가 연주하는 것이란다. 오호! 그림과 도자기만도 놀라운데 기타연주까지 수준급이라니 놀라웠다.

도자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주제에서 벗어난 기타에 대해선 많이 묻지 못했다. 작업실에 갔더니 그곳에도 기타 한 대가 놓여있었다. ‘왕년에 기타 좀 쳤다’는 정도가 아니라 여전히 일상 속에서 기타연주는 작가의 중요한 일상인 것 같았다. 참을 수 없어 한 곡 부탁하려고 했는데 작가가 즉석에서 악보도 없이 멋진 기타연주를 들려주었다. 문외한의 귀로 들어도 수준급 연주였다.

알고 보니 그는 대학시절 4인조 그룹 멤버로 활동하며 교도소 위문공연 등 왕성한 활동을 하였다고 한다. 미술에 음악까지 ... 여러 재능을 고루 타고나는 것도 축복받은 일이지만 타고 난 재능을 갈고 닦아 힘껏 꽃피우는 것 또한 남다른 노력이 따르는 법이다. 바쁜 교직생활 중에도 이런 많은 일들을 해 내고 남다른 성취를 이룬 작가의 열정에 새삼 고개가 숙여진다. **A**



시 & 수필
+
꽃별

꽃 별

전 위 영

한국문인협회 홍성군지부 회원 · 시인

새벽별 마주보며
이슬에 맺히다
꽃별로 모두피어
향기로 인사하고
밤에는 하늘별과 마주 보며
별꽃 되어 웃는 구나.
때가 되어 질 때도
꽃별 되어 인사하네.



| 프로필 |

시인, 시조시인

한국시조사랑시인협회 정회원

시 & 수필
+
봄의 향기

봄의 향기

조 승 만

한국문인협회 홍성군지부 회원

그 언젠가
어둠속에서 말없이
숨을 죽일 때
시간은 멎은 줄 알았다

머리 위에
무거운 대지를
열고 나오는 작고 여린 풀잎
위대한 힘이 놀랍다
볼수록 아름답다

너의 모습은
기적이고
부활이며
새로운 탄생이
아니라면 무엇일까

들꽃은 잔치를 열어
필력이는 가슴에
기쁨의 노래가 되고
따스한
이야기를 전해준다



| 프로필 |

충남도의회 의원
전) 홍성읍장 조승만

시 & 수필
+
교육은
나무를 가꾸는 것처럼!

교육은 나무를 가꾸는 것처럼!

주 호 창

한국문인협회 홍성군지부 회원

나무는 심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꾸는 것이며, 나무에 가위질을 하는 것은 나무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나라가 1950년대에는 전국에 민둥산이 많았는데 보라, 지금은 얼마나 푸르른 산천이 되었는가! “옛 동산에 올라”〈이은상 작사〉의 노래 말대로 “새 솔이 나서 키를 재려하는 구료”가 실감난다.

나무 목(木)의 한자는 丨를 심고 좌우로 버팀목을 세워준 것 같은 모습으로 원래 한자는 어떤 물체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상형문자에서 비롯되었다.

나무에는 뿌리 근(根), 줄기 간(幹), 가지 지(枝), 잎새 엽(葉), 꽃 화(花), 열매 실(實)이 있고, 이에 새 조(鳥)가 들어가면 금상첨화(錦上添花)가 되겠다.

한 그루의 나무는 목(木)이 되지만 두 그루는 수풀 림(林)이 되고, 세 그루는 뻘 뻘할 삼(森)이 되는데 그럼 네 그루의 한자는 없는가?

요즈음 한자의 자획을 분합하여 맞추는 수수께끼나 속담처럼 새로 만들어지는 파자(跛字)에 의하면 나무 목자 네 개는 장글 장(林林)으로 흥미 있게 만들기도 했다.

또, 1년의 결실을 위해서는 곡식을 심고, 10년의 결실을 위해서는 나무를 심고, 100년의 결실을 위해서는 인재(人材)를 심고, 영원의 결실을 위해서는 복음을 심으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큰 나무(거목;巨木) 밑에서는 풀이 자라지 못하지만 큰 인물(위인;偉人) 밑에서는 큰 인물이 배출된다는 사실은 깊은 뜻을 내포하기도 한다.



| 프로필 |

전) 풀무학교 교감, 한문강사
홍주문학회 회원

과거에는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말라”했지만 현대는 “못 올라 갈 나무는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라”고 적극성을 권장한다.

이처럼 사람이 나무를 심고 가꾸면 사람에게 꽃과 열매의 아름다움과 우리 삶에 필요한 화목 그리고 가구와 주택의 재료가 되기도 하고 숲에서의 건강도 보상해 준다.

그리고 흔히 하는 말 가운데 “나무(부분)만 보지 말고 숲(전체)을 보라”는 말이 있는데 흰 종이에 ‘·’을 찍어서 보여주면서 무엇이 보입니까? 질문하면 대부분은 점이 보인다고 하는데 사실은 전체인 종이가 더 잘 보이는데 그것은 도외시(度外視)하여 전체보다 부분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다.

인간은 일생동안 4가지를 심으면서 살아가는데 1) 산에는 나무를 2) 사회에는 인물을 3) 정신에는 이상을 4) 생활에는 미래를 심게 된다고 한다.

이처럼 자연 속의 한 그루 나무는 인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좋은 인재의 육성인 교육(敎育)은 백년지계(百年之計)라고 하며, 3 종류의 교육인 1) 자연의 교육은 인력으로 불가능하고 2) 사물의 교육은 인력으로 좌우할 수 있지만 3) 인간의 교육은 인간(人間)의 진실(眞實)로 좌우할 수 있다고 한다.

결국 진실이 상책이며 한 그루의 나무를 보살피듯이 100년의 앞을 바라보며, 오늘도 묘목(苗木)과 같은 초등학생들에게 명심보감(明心寶鑑)을 가르치려고 차의 시동을 걸었다. 



시 & 수필
+
짱뚱어

짱뚱어

배 윤 진

물양금시문학회 회원

질퍽거리는 세상이
전부인줄 알았다
얼마나 많은 세월을
가슴으로 부비며 살아 왔던가
허우적댈수록
헤어날 수 없었던 순간들

하늘 올려다보며 꿈꾸던 자유는
지는 석양 따라 기울곤 했다
갯벌을 뒤집어쓰면서도
에메랄드 빛 반문을
새겨두며 기다린 세월

벗어날 수 없는 굴레
잔물만 들이쳐고
빨 속으로 쓸쓸히 몸을 감추는
짱뚱어의 보금자리 위로
파도 소리만 가득 찬다

시 & 수필
+
봄이라서 좋아라

봄이라서 좋아라

윤은진

물양금시문학회 회원

오후 세시부터 혼자 빈집을 지키느라
입안에 거미줄이 쳐질 것 같다
물오른 뜰에 나와 땅을 밟는다
호되게 춥다가 날이 풀리면서
감나무도 땀을 흘리고
땅바닥도 움팡지게 움츠렸던 어깨를 펴는데
자꾸만 지상으로 스물스물 김을 뽑어댄다

하늘이
마스크팩 붙였다 떼어낸 듯 화사한 얼굴을 들이민다
물광피부로 눈이 부서 바로 쳐다 볼 수 없는 햇살
손지붕을 하고도 잔뜩 찡그린 채 하늘을 본다
이렇게 맑은 날
연두빛 먼 산이 선뜩 다가서는 봄이라서 좋아라
그냥 좋아라



독자기고

+

하수도 사건

하수도 사건

최 규 원

홍성경찰서 · 홍성문화원 회원

오늘은 토요일, 추석 명절을 며칠 앞두고 벌어진 일이다. 나는 야근을 하기 위해 출근을 했다. 내가 근무하는 지역에 대하축제가 성대하게 열리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있었다.

야외무대에서 초대받은 가수들의 노래 소리가 크게 퍼져 나가고, 구경하는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가 무척 시끌벅적 했다.

밤하늘에 폭죽이 수없이 쏟아졌고, 그렇게 어둠속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순간에 내게 전화가 걸려 왔다.

나는 시끄러운 소리에 제대로 듣지를 못했는데, 곁에 있는 조수가 내 전화벨 소리를 듣고는 내게 알려주어 알게 되었다.

전화를 받아보니 아내에게서 걸려온 전화였다. 주변에 시끄러운 소리만큼이나 아내의 목소리도 다급한 듯싶었다.

“여보! 지금 집에 난리 났어요!”

“하수도가 막혀서 싱크대로 넘쳐흘러서, 집안이 온통 물난리고 악취가 엄청 풍겨요!”

“지금 아파트 관리실 아저씨들이 와서 냉장고 등을 옮기고, 수리를 하고 있는데 장난이 아니예요.”하는 것이다.

아니 내가 출근을 할 때만 해도 아무 이상이 없던 하수도가 왜 고장이 났다는 것인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근무를 내팽겨두고 달려갈 수도 없고, 빨리 치우라고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주변이 너무도 시끄러워 오랫동안 전화통화를 할 수도 없었다.

그냥 그렇게 하수도가 막혀서 고장이 났나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근무하는 여건이 먼저인지라 전화를 끊은 것이다.

축제를 시작하는 주말이고, 추석 명절을 앞둔 시기이다 보니 축제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밀려들고 있었다. 다행히도 아무 탈 없이 밤 근무를 마치고, 다음날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제일먼저 쾌쾌한 악취가 코를 찔렀다. 집은 온통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아내는 싱크대 앞에 엎드린 채로 열심히 바닥을 닦고 있었다.

주방 옆 다용도실에 놓여있던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는 이미 딸 방으로 옮겨져 있었고, 싱크대 밑바닥에는 아내가 닦아내지 못한 오물이 조금씩 남아 있었다.

관리실 아저씨 두 분은 다용도실에서 바닥장판을 도려내고 있었고, 연신 물로 바닥을 세척하고 있었다. 나는 엎드려 청소하는 아내를 향해 물었다.

“여보,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러자 아내는 대답했다.

“전화한대로. 보시는 대로. 그대로예요.”

싱크대 하수도가 막혀 오물이 역류하여 우리 집으로 흘러넘친 것이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2층이다.

전에 살았던 아파트는 부모님이 몸이 불편하여 엘리베이터가 필요 없는 1층에서 살다가, 지금 살고 있는 2층으로 집을 옮겨온 것이다.

다용도실에서 청소를 하고 계시는 관리실 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물어보았다.

“수고들 하십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하고 묻자,

“위층에 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어느 분이, 하수관에 음식쓰레기인 김치를 많이 쏟아 부어서 하수관이 막혀 역류한 것입니다.” 하고 답변을 해주신다.

“아니 막히면 1층에서 막혀야지 왜 2층이 막힌단 말입니까?” 하고 의아해하며 물었다.

“아파트 하수관 구조는 위층에서부터 2층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 1층은 따로 하수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리실 직원의 답변에 나는 그제야 이해를 할 수가 있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14층 건물이다. 그러니까 위층에서 내려오는 하수는 우리 집이 마지막인 것이다.

그러니 위층 누군가가 음식쓰레기를 하수관에 버려서, 우리 집에서 막혀버린 것이다. 그제야 나는 아파트의 구조를 알 수가 있었다. 나는 대뜸, 관리실 직원들에게 물었다.

“그러면 음식쓰레기를 버린 사람을 찾았습니까?” 하고 물으니,

“죄송하지만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주신다.

“누군지 찾아서 얼굴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네.”

“한 건물에 사는 사람들끼리 어떤 사람이 이렇게 몰지각한 행동을 했는지 봤으면 좋겠네.” 하고 혼자 넋두리 밖에 할 수가 없었다.

근무복을 벗어놓고 반바지로 갈아입고 나와, 나도 함께 청소를 돕기 시작했다. 싱크대 밑 오물을 닦아내고, 우레탄 타일을 들쳐가며 오물을 닦아내었다.

그때 1층에서 사람이 올라왔다. 1층에 사는 사람은 식탁에서 밥을 먹다보니, 천장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고 냄새가 나서 올라왔다는 것이다.

자초지종을 설명해주니 다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고마웠다. 관리실 직원들은 1층까지 오수가 새어나간 것을 듣고는 기다란 한숨을 쉬었다.

역류하여 넘친 오물은 그럭저럭 씻어낼 수가 있었으나, 집안에 베인 냄새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거실이며 아이들 방까지 문이란 문은 모두 열어놓고, 통풍을 시키는 방법밖에 없었다.

쏟아져 나온 오물은 쓰레기봉투 2개 분량이나 되었다. 그 많은 양이 한 번에 흘렀으니, 하수도가 막힐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막힌 하수도는 엿저녁 수리공을 불러 간신히 뚫어놓은 상태였다. 하수도 수리를 해주신 분이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래서 아파트 아래층은 되도록이면 구입하지 않고, 값이 저렴한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하고 알려주며 돌아갔다고 한다.

관리실 직원들은 일을 하면서도 우리에게 연신 죄송하다고 인사를 하였다. 마치 자기내들이 잘못한 것처럼 말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아파트 관리실에서는 어제 저녁부터 계속해서 방송을 했다. 음식쓰레기를 하수관에 버리지 말라고, 하수관이 막혀 오물이 역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안내방송을 하고 있었다.

사고 직후에도, 내가 살고 있는 건물에 안내방송을 하여 물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물을 사용하다보니 물이 넘쳐나고, 그로인해 많은 물이 역류하여 1층까지 피해를 본 것이었다.

이틀을 환기를 시키고 나니 조금은 냄새가 가신듯 했다. 월요일 아침에 계란 한판과 음료수를 사들고 관리실을 찾았다.

사고 직후, 오셔서 고생하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을 전하며 음료수를 건넸더니 환한 미소로 답을 해주셨다.

관리실 직원은 아내가 핸드폰으로 찍어놓은 사진을 전송해달라고 했다. 저녁에 동 대표모임이 있는데, 그때 보여주고 설명과 당부를 부탁하려고 한다는 말씀이었다.

그 뒤에도 안내방송은 계속 되었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우리 집 하수도 사건으로 인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었다.

며칠 뒤 관리실에서 찾아와, 다용도실에 장판을 새로이 깔아주고 딸 방에 있던 냉장고도 제자리로 옮겨주었다.

이번 사고로 인하여 아파트관리실 아저씨들의 수고로움과 친절함을 엿볼 수 있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발생한 우리 집 커다란 사건은 일단락이 되었다.

누가 그랬는지 범인은 끝내 확인되지는 못했지만, 고마운 분들이 여전히 우리들 곁에 많이 계신다는 것에 감사하는 사건이었다. 🙏

사진 & 미술
+
청소년현대미술

청소년현대미술 - ART AND PLAYING -



현대미술이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기획된 청소년 작품으로
청소년들이 보여주는 즐겁고 유쾌한 놀이는
우리의 일상 속에 잠재된 상상력을 이끌어내는데 한 몫을 하게 되었다.

작품주제로 설정한 미술의 유희적인 요소는
청소년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심리적 압박감을 해소시키고
메말라 있는 정서를 순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지루하고 기능위주의 미술교육을 벗어나
대중문화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현대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다양한 흥미와 욕구를 충족시키며
새로운 주제를 창조하며 완성된 작품이다.

자료제공 : 충남현대미술작가협회 홍성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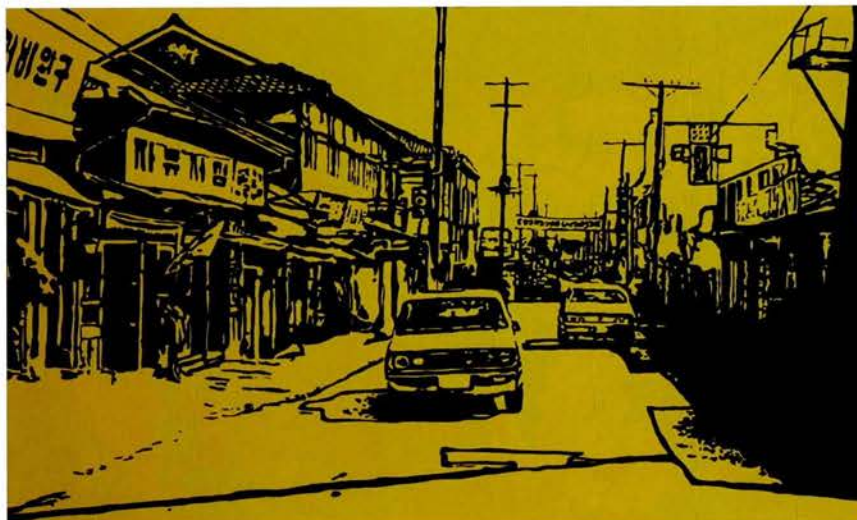
아이스케키

- 고민지
- 청운대학교 1학년
- 작품제작당시 홍성여자고등학교 2학년



일본여행

- 엄선우
- 홍성여자고등학교 1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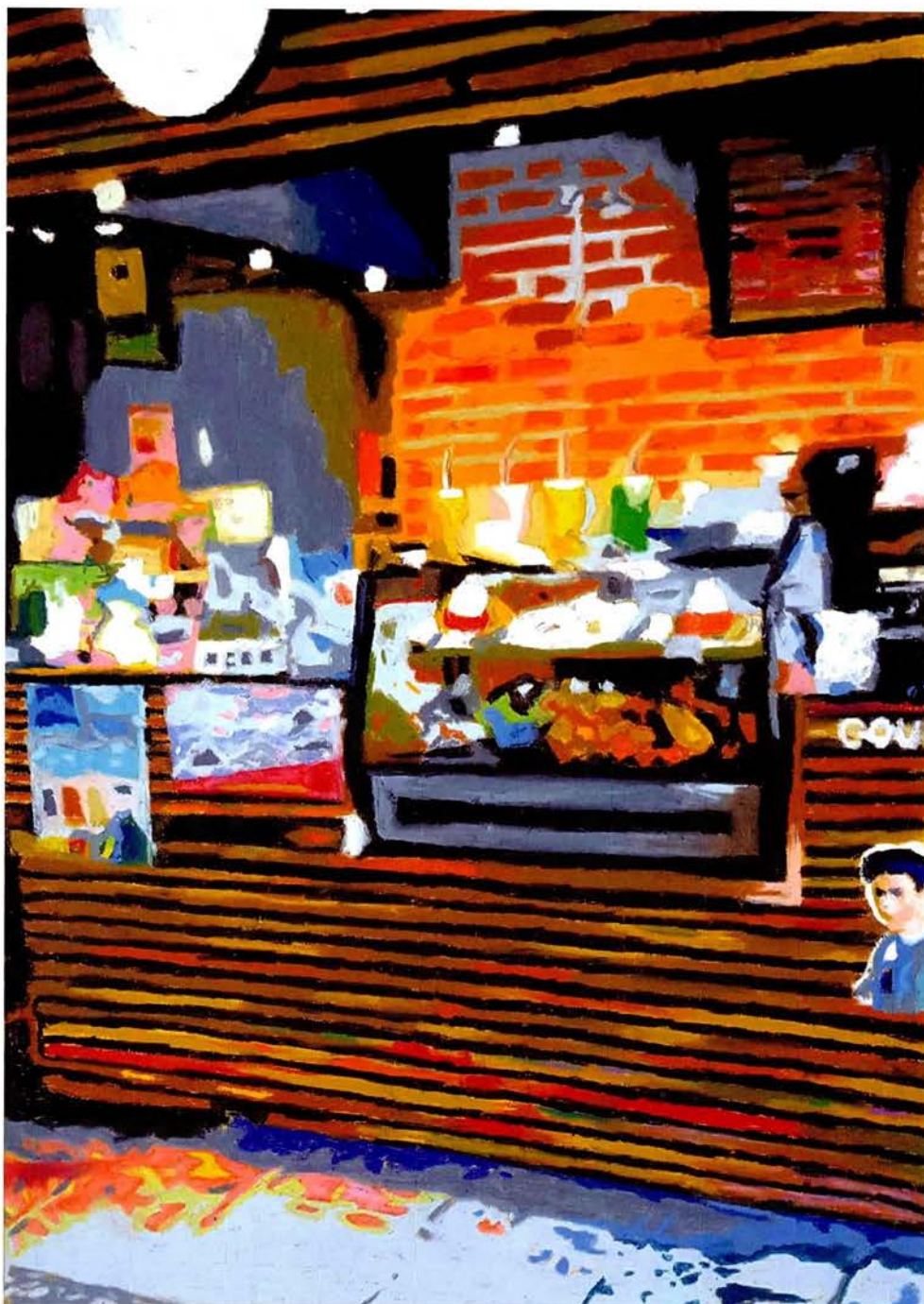
홍성1970

- 이상헌
- 고려대학교 1학년
- 작품제작당시 홍성고등학교 2학년



응시

- 한민영
- 홍성여자중학교 3학년



단골 카페

- 이준서
- 천안북일고등학교 1학년

홍성문화원 소식 - 상반기 문화탐방

홍성문화원, 상반기 문화탐방 실시

지난 4~6월 세 차례, 진해·파주광명·경주로 문화탐방 다녀와
지역주민 230여명 참가 ... 전통 역사문화체험 기회제공



홍성문화원은 지난 4~6월 세 차례에 걸쳐 총 230여명의 지역주민이 참가한 가운데 진해, 파주·광명과 경주로 문화탐방을 다녀왔다.

문화탐방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전국(또는 해외)에 있는 역사, 문화 유적지를 탐방하며 현지 문화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직접 과거의 역사문화를 보고 느끼고 배우는 현장체험을 제공하여 우리의 전통문화 및 문화재에 대한 우수성과 자긍심,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돼 매년 지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상반기 문화탐방은 1회차는 4월 6일(금), 2회차는 5월 24일(목), 3회차는 6월 19일(화)~20일(수) 3회에 걸쳐 진행됐다.

이번 1회차 진해문화탐방은 지역주민 85여명이 참가, 벚꽃축제로 유명한 경남 창원시 진해로 문화탐방을 떠났다. 진해역, 진해 근대문화 역사길, 여좌천 로망스다리, 경화역 일원을 다녀오는 코스로 진해 시가지 구석구석을 걸어 다니며 활짝 핀 벚꽃풍경도 감상하고, 근대문화유산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또한 2회차 파주광명문화탐방은 지역주민 80여명이 참가, 경기 파주·광명으로 문화탐방을 다녀왔다.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프로방스 마을을 거쳐 광명 업사이클아트센터, 광명동굴을 둘러보는 코스로 짜여졌다.

마지막으로 3회차 경주문화탐방은 지역주민 65여명이 참가, 경북 경주로 문화탐방을 떠났다. 대릉원, 계림~교촌마을(최부잣집), 황룡사 역사문화관, 남산 탐곡 부처바위, 경주 중앙시장, 첨성대, 동궁 및 월지(안압지) 야경, 불국사, 파도소리길 트레킹, 문무대왕릉, 감은사지, 경주월드를 다녀오는 1박 2일 코스로 짜여졌다. 이번 탐방은 이틀간 현지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경주의 유구한 역사문화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특히 우리지역의 출향인인 경주월드 최건환 대표의 협조와 환대 속에 흥겨운 시간도 마련되었다.



한편, '2018 문화탐방(문화유산답사)'은 충청남도과 홍성군의 지원을 받아 마련되어 4월부터 10월에 걸쳐 연 6회 실시된다. 앞으로 남은 하반기 문화탐방은 7월과 9월, 10월 세 차례 실시할 예정이다.

접수방법은 방문 및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홍성문화원 홈페이지(<http://www.hssc.co.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팩스(041-633-1199) 또는 이메일(hongsung3613@hanmail.net)로 신청하면 된다. 매회 참가비는 1인 2만원 정도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홍성문화원 사무국(041-632-3613)으로 문의하면 된다. 

홍성문화원 소식 - 전통성년식

스무살, 당신의 청춘을 응원합니다

홍성문화원 · 혜전대학교, 지난 5월 21일 전통성년식 개최
혜전대 학생 500여명 참석

성년의 날인 지난 5월 21일 오전 11시 혜전대학교 간호학술관 대강당에서 올해 성년이 되는 혜전대학교 학생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성년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홍성문화원(원장 유환동)은 성년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만19세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우리의 전통방식으로 진행되는 전통관례 및 계례의식을 거행했다.



해전대학교(총장 이재호) 후원으로 열린 이날 전통성년식은 식품영양과 양형주 군이 올해 성년이 되는 남자를 대표해 관례의 관자로, 동대학 소방안전관리과 안현아 양이 성년이 되는 여자를 대표해 계례의 계자로 선정되어 전통적인 절차에 따라 성년이 되는 의식을 치렀으며, 그 외 남녀 각 9명씩의 학생들도 함께 참여했다.

주례는 홍주향토문화연구회장 안병주 씨, 계자빈은 꽃맘 월전 권혜숙 씨가 맡았으며 집례자는 홍주향교 장의 서양모 씨가, 관자와 계자 부모, 찬자와 시자의 역할은 홍성문화원 이사와 선명예다연구회 회원들이 맡았다.

의식은 먼저 어른이 입는 세 가지 복장을 갈아입으며 교훈의 말씀을 전하는 '삼가례(초가례, 재가례, 삼가례)'가 진행되고 다음은 어른이 되었음을 상징하는 의미로 남자에게는 관을 씌워주고, 여자에게는 비녀를 틀어주는 '가관례', 성인이 됨을 축하하는 뜻에서 관자에게는 술을, 계자에게는 차를 마시는 법도를 알려주는 '초례', 마음가짐과 행동을 경계하라는 뜻을 담아 이름 대신 부를 수 있는 자를 내려주는 '명자례' 순으로 진행됐다.



끝으로 “이제 모든 예의를 다 갖추었으니 성인이 되었다. 이 좋은날에 너에게 자를 지어주었으니 마땅히 소중하게 지닐 것이며, 아름다운 글자에 합당하는 올바른 행동을 실천할 지니라” 크게 ‘성년 선언’을 외치면서 모두 마무리됐다.

한편, 전통성년식은 충청남도와 홍성군의 지원을 받아 홍성문화원과 해전대학교에서 성년자들에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자긍심을 높여주고자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홍성문화원 소식 - 2018 소소한 콘서트 '와러씨커스'

가정의 달 기념, 소소한 콘서트 개최

지난 5월 30일, 홍성문화원 대강당에서
유쾌함의 절대강자 '와러씨커스 밴드' 초청 ... 관객들에게 즐거움과 행복 선사

유쾌함의 절대 강자 '와러씨커스'라 쓰고 즐거움이라 읽는다.
드디어 '와러씨커스 밴드'가 홍성에 떴다!

홍성문화원은 지난 5월 30일 오후 7시 홍성문화원 1층 공연장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유쾌함의 절대 강자 와러씨커스 밴드를 특별초청하
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소소한 콘서트를 개최했다.



와리씨커스는 색소폰 조재신, 보컬 오경록, 드럼 김재광, 베이스기타 고한웅, 일렉기타 황세연, 키보드 최희용으로 구성된 유명한 밴드로 여러 가지 음악장르가 섞여있는 대중가요 밴드이기도 하다.

2010년 정규 1집 'What a circus'로 데뷔 이후 꾸준한 활동을 해오며 '유쾌함' 하면 와리씨커스를 떠올릴 만큼 대중들에게 유쾌함과 웃음을 선사해주는 밴드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슈퍼스타K 시즌 6과 탐밴드 시즌 3 등 방송을 통해 더 알려지면서 각종 페스티벌 및 콘서트 등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 홍성 공연은 전석 무료입장으로 지역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와리씨커스 멤버들은 즐거운 무대를 위하여 댄서들 못지않은 춤동작들과 재밌는 퍼포먼스로 관객들의 흥을 돋우면서, 젊은 세대는 물론 청소년부터 노년의 관객들까지 모두를 사로잡는 유쾌함과 웃음을 선사했다.

또한 이번 콘서트에서 〈피자송〉, 〈오늘은 내 남은 인생의 첫 날〉, 〈젊으니까 괜찮아〉, 〈뜨려나〉 등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든든한 에너지를 주는 곡들을 들려주었으며, 이런 희망적인 가사와 신나는 음악으로 삶의 무게에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자리가 되었다.

한편, 유환동 원장은 “오늘 공연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의미 있게 준비한 만큼 가족의 소중함도 깨닫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홍성문화원은 지역공연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매달 소소한 콘서트로 다양한 공연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18년 신년교례회

1월 3일(수) 오후 4시~7시, 리첸시아 웨딩홀 2층에서 무술년 새해를 맞아 홍성의 지역발전과 화합을 기원하기 위해 지역 내 각급 기관·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인사를 전하며 새해 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참석자들의 인사가 이어진 뒤 최순희 내포시낭송협회장의 축시낭송, 이봉연 서예가의 신년휘호쓰기, 홍성군립오케스트라의 연주와 성악, 케익절단 및 건배제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특히 올해로 100세를 맞이한 홍주향토문화연구회 이건엽 전 회장은 “홍성의 발전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으자”고 강조해 큰 박수를 받았다.

한편, 유환동 문화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홍주천년의 유구한 역사와 우리만의 문화, 예술을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대화와 소통을 통해 군민들이 하나로 화합하고 단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앞장서 서줄 것을 당부 드린다”며 “새해에는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뤄지는 멋진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 신년음악회 ‘피아노 듀오 콘서트’

1월 18일(목) 오후 7시~8시 30분, 홍성문화원 1층 공연장에서 클래식 음악과 함께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자는 의미로 펼쳐졌다. 이번 콘서트는 국내와 유럽에서 활발한 연주활동을 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오혜전과 김은애를 특별초청, 1대의 피아노를 2명이 연주하는 듀오 연주회로 진행됐다.

이날 공연은 특히 대중이 쉽게 접하지 못했던 탕고음악의 거장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음악을 피아노로 연주하며 모든 곡에 대한 해설을 덧붙여주어 관람객들이 쉽게 다가가고 감상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제60차 홍성문화원 정기총회

2월 21일(화) 오후 4시~7시, 홍성문화원 1층 공연장에서 유환동 원장을 비롯한 이사 및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이날 총회에서는 문화원의 2017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안과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승인하고, 감사 선출과 함께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세부사업 의견도 내놨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를 끝내고 문화원 2층 전시실에서는 회원 및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저녁 만찬도 즐겼다.



문화대장군 및 예술여장군 장승 제막식

2월 21일(화) 오후 5시~5시 30분, 정기총회를 끝내고 홍성문화원 입구에서 유환동 원장을 비롯한 이사 및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 민화합 및 문화발전을 위한 기원제를 지내고, 문화대장군 및 예술여장군 장군의 장승 제막식을 가졌다.

이번 계기로 홍성문화원은 앞으로도 여러 장승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원 주변의 볼거리를 계속해서 제공할 계획이다.



2018 홍주천년맞이 '바람난 재즈 콘서트'

6월 11일(월) 오후 7시 30분~9시, 홍성문화원 1층 공연장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번째로 재즈 오케스트라 홍순달 밴드를 초청하여 바람난 재즈 콘서트를 개최했다.

홍순달 재즈 오케스트라는 색소폰, 보컬, 피아노, 기타, 베이스기타, 드럼으로 구성되어 재즈의 대중화를 이끄는 국내 대표적인 밴드로서 천안을 기반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콘서트도 전석 무료입장으로, 대중에게 어렵게만 느껴지던 재즈를 귀에 익은 음악들로 재즈 선율로 풀어내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하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선보였다.



2018 러시아 월드컵 승리기원 거리응원전

6월 18일(월) 오후 7시 30분~11시, 홍성군청 여하정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러시아 월드컵 대한민국 대표팀의 승리기원 및 16강 진출을 위한 거리응원전이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홍성군과 홍성군체육회, 홍성군축구협회의 지원을 받아 응원도구 및 300인치 대형 LED 스크린을 준비하고, 경기 중계전까지 다채로운 문화공연과 함께 무료음료와 팝콘 등을 제공하여 지루한 응원전이 아닌 흥겹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이날 한국과 스웨덴전은 첫 경기인 만큼 지역주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의 승리를 기원하는 열띤 응원이 펼쳐졌으며, 이번 거리응원을 통해 지방선거로 흩어진 지역갈등을 화합하고 지역주민 모두가 축구로 하나가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2018 보훈향기 나라사랑 음악회

6월 28일(목) 오후 7시 30분~9시, 홍성문화원 1층 공연장에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호국영령 및 순국선열들의 넋을 위로하고자 홍성군민과 보훈가족들이 하나 되는 문화공연을 개최,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나라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자리가 되었다.

한편, 충남서부보훈지청의 지원을 받아 마련된 이날 음악회는 클래식트리오 연주, 성악, 오카리나·팬플룻 연주, 민요공연, 색소폰합주단 연주, 초청가수 김경아·팝페라·하이런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다.



2018 품다락 토요일문화학교 운영사업

‘꿈이 피어나는 오카리나 교실’

우리지역 홍성의 대표적인 문화콘텐츠인 오카리나를 소재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오케스트라 연주활동을 통해 음악에 대한 흥미와 협동심을 기대하며,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와 바람직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바른 인성을 기르기 위하여 지난해 이어 올해 2년째 충남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마련됐다.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청소년(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30명을 모집,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3시간씩 악기교육과 합주연습, 현장체험학습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10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정기연주회를 가질 계획이다.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로 청춘’

색소폰, 아코디언, 민요, 모듬북, 난타, 사물놀이 등 아마추어 어르신들의 문화예술활동과 공연기회를 제공하는 어르신 공연단을 구성하여 지역의 전통시장 등으로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실시, 지역 전통시장의 관광 활성화와 실버문화예술동아리의 육성 및 활성화를 기대하며, 어르신들의 예술적 성취감 제고와 삶의 활력을 부여하고자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지원을 받아 마련됐다.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어르신을 대상으로 공연단원 50명을 구성, 정기적인 실버문화예술동아리 육성과 함께 관내 전통시장을 찾아가는 공연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향토문화소식지 『홍성문화』 발간

홍성의 역사,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문화유산과 소식을 기록하고 해석, 발전시켜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에 대한 인식향상과 우리고장을 더욱 알리는 역할을 도모하고자 '홍성문화'를 연2회 발간. 매년 6월 말과 12월말에 각 1,000부씩을 발행한다.

홍성군민, 기관단체를 비롯한 전국지방문화원과 유관기관, 도내도서관, 문화원 회원, 지역주민, 출향인사 등을 대상으로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문화체육자원봉사 매칭시스템

‘홍성군지원센터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원연합회, 국민생활체육회가 생활문화·체육확산과 문화체육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구축한 문화봉사자(공급자)와 봉사자가 필요한 활동처(문화시설/단체)를 효율적으로 연결해주는 온라인 매칭시스템으로서, 이 사이트를 통해 문화·체육 분야의 시설 및 단체들은 필요한 봉사자를 손쉽게 모집·관리할 수 있으며, 봉사에 참여하는 개인, 동호회, 전문가들은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홍성문화원은 2014년 12월부터 문화체육자원봉사 매칭시스템 홍성군지원센터로 지정되어 홍성관내 문화자원봉사자와 활동처들에게 다양한 문화자원봉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문화학교 강좌 운영

홍성군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문화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학교를 연중 운영. 매년 다양한 문화강좌를 실시해오고 있다.

이번 상반기는 한글서예, 첼로, 국선도, 요가(전통요가), 탁구, 라인댄스, 문인화, 플루트, 실버로빅, 서양화, 오카리나, 통기타, 요가(발레핏 필라테스), 요가(필라테스&에어로빅), 난타, 민요, 풍물놀이, 색소폰, 풍수지리, 치매재활레크레이션지도사1급자격과정, 노래, 아코디언, 한문서예 등 30개 강좌를 운영했다.



향토도서관 운영

문화가족 및 지역주민들에게 문화향양과 여가선용을 제공하기 위해 향토도서관을 연중 운영, 홍성문화원 회원이면 도서관의 모든 도서 및 자료(DVD, CD) 등을 열람하고 대출할 수 있다.

이용시간은 평일 월~금 오전 9시부터 6시까지이며, 이용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한 후 문화원 사무국을 방문하여 희망하는 도서 및 자료를 열람하거나 대여하면 된다.





『홍성문화』 원고모집

독자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원고를 모집합니다.

홍성문화원을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홍성문화』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집분야

시, 소설, 에세이, 사진 등 : A4 2~5장, 글자 10Point

4컷 혹은 8컷 카툰 : 14×15cm, 1654×1772픽셀 이상 300dpi의
jpg파일 형식

사진 또는 그림이미지 : 고해상도 원본파일(1654×1772픽셀 이상)

보내실 곳

32234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절로951번길 16

홍성문화원 사무국

T. 041-632-3613 F. 041-633-1199

E. hscult@naver.com

비 고

원고를 송부하실 때에는 성명, 전화번호를 꼭 기재하여 주시고
필자의 사진과 원고관련 사진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홍성문화원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홍성문화원 회원 모집 안내

홍성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거,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문화관광부 산하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향토문화 계승·보존과 지역문화 예술 발전을 위한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 상 : 누구나 / 연회비 : 50,000원

총회 의결권 부여(12개월 이상 납부자)

정기간행물인 『홍성문화』 무료 우송

문화탐방 및 기행프로그램에 우선 초대

각종 문화예술행사에 우선적으로 초청

문화학교 강좌 프로그램의 수강료 30% 할인(일부 강좌 제외)

홍성문화원 도서관의 모든 간행물 및 자료(DVD, CD) 열람 및 대출

※ 회원가입은 문화원 사무국에 비치되어 있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 문 의 ☎(041) 632-3613

2018년 3학기 **홍성문화원 문화학교** 강좌 안내

강좌	교육기간	교육시간	정원	수강료
주간강좌				
한글서예	7.02~9.24	월 10:00~12:00	15명	6만원(3개월)
첼로	7.02~9.24	월 10:00~12:00	15명	9만원(3개월)
국선도	7.02~9.28	월,수,금 16:00~17:00	25명	6만원(3개월)
요가A(고급과정)	7.02~7.12	월,수,금 09:50~10:50	15명	10만원(2개월)
요가B(고급과정)	8.14~9.28	월,수,금 11:00~12:00	15명	10만원(2개월)
요가C(전통요가)	7.03~9.27	화,목 10:00~11:00	25명	6만원(3개월)
요가D(전통요가)	7.03~9.27	화,목 11:10~12:10	25명	6만원(3개월)
NEW 다도	7.03~9.25	화 10:00~12:00	20명	15만원(3개월)
라인댄스A(신규)	7.03~9.27	화,목 17:30~18:30	20명	9만원(3개월)
라인댄스B(기존)	7.04~9.28	수,금 17:30~18:30	20명	9만원(3개월)
문인화	7.04~9.26	수 10:00~12:00	20명	6만원(3개월)
플루트	7.04~9.26	수 10:30~12:30	20명	9만원(3개월)
실버로빅	7.04~9.28	수,금 14:30~15:30	30명	3만원(3개월)
서양화	5.03~8.30	목 11:00~13:00	15명	12만원(4개월)
오카리나	7.06~9.28	금 10:00~12:00	20명	6만원(3개월)
NEW 성악	7.06~9.28	금 10:00~12:00	20명	6만원(3개월)
노래	연중수시	월 14:00~16:00	100명	3만원(3개월)
아코디언	연중수시	수 15:00~17:00	15명	9만원(3개월)
한문서예	연중수시	금 15:00~18:00	15명	15만원(3개월)
야간강좌				
NEW 직장인생활스파치	7.02~12.31	월 19:00~21:00	20명	18만원(6개월)
통기타A(초급)	7.02~9.24	월 19:00~21:00	20명	9만원(3개월)
통기타B(중급)	7.05~9.27	목 19:00~21:00	20명	9만원(3개월)
요가 E (발레핏 필라테스)	7.02~9.28	월,수,금 19:00~20:00	25명	9만원(3개월)
요가 F (발레핏 필라테스)	7.02~9.28	월,수,금 20:00~21:00	25명	9만원(3개월)
요가 G (필라테스&에어로빅)	7.03~9.27	화,목 19:00~20:00	25명	6만원(3개월)
요가 H (필라테스&에어로빅)	7.03~9.27	화,목 20:00~21:00	25명	6만원(3개월)
난타	7.03~9.25	화 19:00~21:00	20명	6만원(3개월)
민요	7.03~9.25	화 19:00~21:00	20명	6만원(3개월)
풍물놀이	7.04~9.26	수 19:00~21:00	20명	6만원(3개월)
색소폰(초급)	7.04~9.26	수 19:00~21:00	15명	9만원(3개월)
풍수지리	5.03~8.30	목 19:00~21:00	20명	12만원(4개월)

※ 본 프로그램은 문화원 사정에 따라 강사, 강의시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운영기간 : 2018년 7월 첫째주부터 개강, 강좌별 3~6개월간 운영
- 접수방법 : 방문 및 온라인 접수 가능 (선착순 마감, 우선 입금자부터 적용)
- 수강료 입금계좌 : 농협 454-01-003876 홍성문화원 (강좌명, 수강자명 기재, 입금후 전화요망)
- 접수문의 : **홍성문화원 사무국 ☎ 632-3613**,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hsgc.co.kr>) 참조
- 기타사항 : 등록정원 미달시 폐강될 수 있음, 개강 후 정원미달인 강좌에 한해서 추가접수 가능

※ 신규강좌 개설에 관한 제안이나 상담 가능합니다.

문화비전 선언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 가족으로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

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 기회의 제공, 문화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 온 지역문화발전의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제 인간의 창의성 계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화적 책임 등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역할의 재정립을 가다듬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문화원의 날'을 제정하고 우리의 공고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여러 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 지방문화원은 이 시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정보와 다문화 시대의 매개자가 된다.
- 지방문화원은 문화 소외층이 없도록 함께 나누며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펼친다.
- 지방문화원은 일회적·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 지방문화원을 문화경영의 전문조직으로 적극 육성한다.

2007년 10월 10일



☼ 홍성문화원